

# 성경신학 개론

저자: 리차드 프렛 2 세 (Th.D., Harvard)

역자: 이창배 (Ph.D., UCLA)

번역 후원: 김문자 (Aunt-in-law)

제 3 강

## 구약의 통시적 발전들



THIRD MILLENNIUM

MINISTRIES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 2012 by Third Millennium Ministrie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for profit, except in brief quotations for the purposes of review, comment, or scholarship,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nc., 316 Live Oaks Blvd., Casselberry, Florida 32707.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l Scripture quotations are from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Copyright © 1973, 1978, 1984, 2011 International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of Zondervan Bible Publishers.

### **ABOUT THIRD MILLENNIUM MINISTRIES**

Founded in 1997,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s a nonprofit Christian organization dedicated to providing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In response to the growing global need for sound, biblically-based Christian leadership training, we are building a user-friendly, donor-supported, multimedia seminary curriculum in five major languages (English, Spanish, Russian, Mandarin Chinese, and Arabic) and distributing it freely to those who need it most, primarily Christian leaders who have no access to, or cannot afford, traditional education. All lessons are written, designed, and produced in-house, and are similar in style and quality to those on the History Channel<sup>®</sup>. This unparalleled, cost-effective method for training Christian leaders has proven to be very effective throughout the world. We have won Telly Awards for outstanding video production in Education and Use of Animation, and our curriculum is currently used in more than 192 countries. Third Millennium materials take the form of DVD, print, Internet streaming, satellite television transmission, and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ministry and to learn how you can get involved, please visit <http://thirdmill.org>.

# 성경신학 개론

## 제 3강 구약의 통시적 발전들

### 목차

<b>I. 서론(Introduction)</b> .....	<b>1</b>
<b>II.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b> .....	<b>2</b>
A. 통시적(Diachronic)	2
1. 대조(Contrast)	2
2. 상호의존(Interdependence)	3
B. 발전(Development)	3
1. 하나님의 목적들(Divine Purposes)	3
2. 하나님의 섭리(Divine Providence)	4
C. 예(Example)	5
<b>III. 시대적 발전들(Epochal Developments)</b> .....	<b>7</b>
A. 다양한 강조들(Diverse Emphases)	8
1. 우주적 언약들(Universal Covenants)	8
2. 민족적 언약들(National Covenants)	9
3. 새 언약(New Covenant)	10
B. 유기적 통일성(Organic Unity)	11
1. 왕국 경영(Kingdom Administration)	12
2. 지속적인 권위(Abiding Authority)	12
3. 확장된 적용(Extended Application)	13
<b>IV. 주제적 발전들(Topical Developments)</b> .....	<b>14</b>
A. 전통적인 주제들(Traditional Topics)	15
B. 모형론(Typology)	16
1. 정의(Definition)	16
2. 특징들(Features)	18
3. 정체 확인(Identification)	21

<b>V. 결론(Conclusion)</b> .....	<b>25</b>
<b>VI. 연구의 길잡이(Study Guide)</b> .....	<b>37</b>
A. 복습을 위한 질문들 (Review Questions)	37
B. 적용을 위한 질문들 (Application Questions)	37

# 성경신학 개론(Building Biblical Theology)

## 제 3 강 구약의 통시적 발전들(Diachronic Developments in the Old Testament)

### I. 서론(INTRODUCTION)

우리 나라에는 “이 아이는 누구냐?”라는 놀이가 있다. 파티를 주최하는 사람들이 성인 손님들에게 오래 전에 그들이 모두 어린 아이였을 때 찍었던 사진들을 돌리면 모든 참석자들은 각각의 사진이 누구의 것인지 추측해 보는 놀이이다. 일반적으로, 적어도 몇몇 사진들은 일부 손님들의 판박이처럼 보일 수 있다. 어떤 성인도 그들이 그렇게 어렸을 때 보이던 모습 그대로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눈의 모습이나 밝은 미소와 같은 어떤 얼굴의 특징은 어느 아이가 어느 성인으로 되었는지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흔히 있다. In my country we have a game called, “Who’s the baby?” The hosts of a party pass out photos of their adult guests from years ago when they were all toddlers and everyone guesses which picture belongs to which person. Usually, at least some pictures can be matched with some of the guests. No adults look exactly as they did when they were that young, but often some facial feature — the shape of our eyes, a bright smile — continue to be similar enough that we can tell which toddlers grew into which adults.

이와 비슷한 일이 구약의 신학에도 적용된다. 구약은 수천년의 세월을 다루고 있어서 그 긴 세월 동안 그것의 신학은 상당히 발전했다. 끝에 이르러 보다 더 성숙한 단계에 이른 구약 신학은 보다 더 이른 초기 단계의 것과 완전히 똑같지 않다. 그러나 그것을 보다 세심하게 살피면 우리는 구약이 실제로 오랜 세월에 걸쳐 발전하며 동일한 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Something like this is true of the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The Old Testament covers thousands of years during which its theology changed quite a bit. The theology, in its more mature stages near the end, is not exactly like the theology of its earlier, younger stages. But when we look more

carefully, we can still see that the Old Testament actually represents the same faith as it grew over time.

이 강의는 **성경신학 개론**이란 강좌의 세번째 강의이다. 강의 제목은 “구약의 통시적 발전들”이다. 이 강의에서 우리는 성경신학이 어떻게 구약의 신학이 세월이 흐르며 발전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살필 것이다. This is the third lesson in our series *Building Biblical Theology*. We have entitled this lesson, “Diachronic Developments in the Old Testament.” In this lesson, we will see that biblical theology focuses on how Old Testament theology developed with the passing of time.

첫번째 강의에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세 가지 주요 접근법을 사용해 온 것을 보았다. 그 중 문학적 분석은 성경을 어떤 관점들을 전달하기 위한 문예적 묘사로 보는 접근법이고, 주제적 분석은 성경을 우리 당대의 (혹은 전통적인) 주제들과 질문들을 반영하는 거울로서 보는 접근법이고, 역사적 분석은 성경을 그것이 보고하는 역사적 사건들을 보게 하는 창으로 보는 접근법이다. 우리는 또한 성경신학이 일차적으로 성경의 역사적 분석에 중점을 두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들에 개입하셨던 방식들을 살핀다는 것을 보았다. 이런 이유로 인해 우리는 “성경신학이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역사적 분석에 기초한 신학적 사색이다.”라고 정의했다. 성경신학은 하나님의 역사 개입에 대한 성경의 서술에 중점을 두고 그 사건들로부터 기독교 신학을 위한 추론들을 끌어낸다. In our previous lesson, we saw that Christians have used three main strategies for understanding the Scriptures: literary analysis, looking at the Bible as a literary portrait designed to convey certain perspectives; thematic analysis, looking at the Bible as a mirror reflecting traditional or contemporary questions; and historical analysis, looking at the Bible as a window to the historical events that it reports. We also saw that biblical theology focuses primarily on historical analysis of the Scriptures, looking especially at the ways God was involved in historical events reported in the Bible For this reason, we defined the discipline of biblical theology in this way:

Biblical theology is theological reflection drawn from historical analysis of acts of God reported in Scripture.

Biblical theology focuses on Scriptural accounts of God's involvement in history and draws inferences for Christian theology from those events.

두번째 강의에서 우리는 성경신학자들이 구약의 신학에 대한 공시적 종합을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보았다. 공시적 종합은 역사의 시기들을 공시적인 단위들로 보며 그 시기 동안 하나님의 행위 계시와 말씀 계시의 교차로부터 일어났던 신학 구조들을 식별함으로써 만들어진다. 이번에 하는 세번째 강의에서 우리는 성경신학자들이 구약 신학을 다룰 때 갖는 두번째 주요 관심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그것은 "통시적 발전"으로 신학 구조들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성장하고 발전한 방식들이다. In the preceding lesson, we saw how biblical theologians create "synchronic syntheses" of Old Testament theology by looking at periods of history as synchronic units of time, and by discerning the theological structures that resulted from the intersections of divine act and word revelations during those periods. In this lesson, we're turning our attention to a second major concern biblical theologians have with Old Testament theology: namely, "diachronic development," the ways theological structures grew or developed over time.

이 주제를 탐구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문제를 다룰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통시적 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받을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시대적 발전들이 주요 역사 시기들(곧 시대들) 사이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살필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구약에서 구체적인 주제들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필 것이다. 그럼 통시적 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자. To explore this subject, we'll touch on three main issues. First, we'll gain a basic orientation toward diachronic development. Second, we'll explore how epochal developments took place between major historical periods or epochs. And third, we'll look at how

specific topics developed over time in the Old Testament. Let's begin with a basic orientation toward diachronic development.

## II.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

“통시적 발전”이란 개념을 소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통시적”이란 단어와 “발전”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통시적”이란 용어를 살피고, 이어서 “발전”이 의미하는 것을 살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에서 통시적 발전을 평가하는 예를 살펴볼 것이다. 그럼 먼저 “통시적”이란 용어를 살펴보자. One of the best ways to introduce the idea of diachronic development is to focus on what we mean by each of these words. We'll look first at the term “diachronic.” Second, we'll turn to what we mean by “development.” And then third, we'll look at a biblical example of assessing diachronic development in the Old Testament. Let's look first at the term “diachronic.”

### A. 통시적(Diachronic)

“통시적”이란 단어는 두 개의 헬라어 단어 곧 “통하여” 혹은 “줄곧, 내내”라는 의미를 지닌 전치사 [디아]와 “시간”을 뜻하는 명사 [크로노스]에서 유래되었다. 통시는 시간의 흐름에 대한 관심이다. 성경신학에서 “통시적”이란 용어는 구약의 신학이 시간을 통하여 변형되거나 변화되거나 발전된 방식들을 가리킨다. Our English term “diachronic” derives from two Greek words: first, the preposition *dia* which often means “through,” or “throughout”; and second, the Greek noun *chronos* which means “time.” Diachrony is a concern with the passage of time. In the case of biblical theology, the term “diachronic” points to the ways Old Testament theology transformed, changed, or developed through time.

구약에 대한 통시적 접근이 지난 번에 했던 두번째 강의의 주제인 공시적 종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통시적 발전이 공시적 종합과 어떻게 대조되는지 살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통시적 접근과 공시적 접근의 상호 의존성을



살필 것이다. 그럼 먼저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대조되는지 살펴보자. It will help to see how diachronic approaches to the Old Testament relate to synchronic synthesis, the topic of our last lesson. On the one hand, we'll see how it stands in contrast with synchronic synthesis. And on the other hand, we'll see the interdependence between diachronic and synchronic approaches. Let's consider first how they contrast with each other.

### 1. 대조(Contrast)

당신은 우리가 구약의 공시적 종합을 영화에서 서로 긴밀히 결부된 부분들을 하나씩 보면서 그 특정한 장면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 비유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공시적 종합은 성경 역사의 선택된 시기들 안에 일어났던 신학 구조들에 초점을 맞춘다. 공시적 접근이 던지는 질문은 그 시기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시하셨는가 하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구약을 통시적으로 보는 것은 영화에서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보여주는 이야기의 흐름에 집중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영화가 점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의 드라마를 전개하는 방식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비슷하다. 성경에 대한 통시적 접근은 신학 구조들이 시간을 통해 점진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집중한다. 통시적 접근이 던지는 질문은 역사가 진행되며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발전했느냐는 것이다. You'll recall that we compared synchronic synthesis of the Old Testament with paying attention to particular scenes in a movie, looking at relatively coherent segments of a film one by one. Synchronic synthesis focuses on the theological structures that emerged within chosen periods of biblical history. What did God reveal during this or that time? By contrast, looking at the Old Testament diachronically is like concentrating on the storyline of a movie as it moves from scene to scene. It's to focus on the ways a film progressively unfolds its drama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Diachronic approaches to the Bible concentrate on how theological structures progressively unfolded through time. How did God's revelations develop as history moved forward?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출받는 것을 다루는 출 1:1-19:1 이 차지하는 비교적 짧은 시기를 살펴보자. 이 시기에 대한 공시적 접근이 던지는

질문들은 이렇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행하시고 말씀하셨는가?” “이 시기 전체 동안 어떤 종류의 신학 구조들이 세워졌는가?” 그러나 통시적 접근은 신학 구조들에 일어났던 변화들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쏟는다. 통시적 접근이 던지는 질문들은 이렇다. “이 시기 동안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행하시고 말씀하셨을 때 신학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모세의 유아시절부터 하나님께서 불 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는 때까지 어떤 신학적 발전들이 일어났는가?” “불 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있었던 하나님의 계시는 애굽에서의 모세 사역을 어떻게 예견해 주었는가?” 이와 비슷한 많은 다른 질문들은 구약의 이 부분에 대한 통시적 접근에서 매우 중요하다. Consider the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covered by Israel’s deliverance from Egypt in Exodus 1:1–19:1. A synchronic outlook on this period would ask questions like: “What did God do and say in this period as a whole?” “What kinds of theological structures were established during this entire time?” A diachronic approach, however, is much more concerned with changes that occurred in theological structures. It asks questions like: “What changes in theology occurred as God acted and spoke in different ways during this period of time?” “What theological developments took place from the time of Moses’ early childhood to his call at the burning bush?” “How did God’s revelation at the burning bush anticipate his work in Egypt?” These and many other similar issues become of central importance in diachronic approaches to this part of the Old Testament.

## 2. 상호의존(Interdependence)

이처럼 통시적 접근법과 공시적 접근법이 서로 다를지라도 그것들은 매우 상호의존적이다. 사실을 말하면, 이 두 접근법을 서로 분리하여 어느 하나를 다른 접근법 없이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인해 성경신학자들은 성경을 다룰 때 다양한 방식으로 공시적인 작업과 통시적인 작업을 번갈아 한다. Now as different as diachronic and synchronic approaches may be, they are also highly interdependent. In fact, it’s not possible to pursue either approach very far without the other. For this reason,

as biblical theologians handle the Scriptures, they move back and forth between synchronic and diachronic work in a variety of ways.

우리의 관점이 보다 더 짧은 시기에서 보다 더 긴 시기로 확대될 때 어떻게 우리가 공시적 접근과 통시적 접근을 번갈아 해야만 하는지 생각해 보라. 우선 어떤 통시적 분석은 매우 짧은 공시적 종합 전에도 행해진다. 어떤 특정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요약하는 방식을 찾기 위해, 우리는 통시적으로 신학적인 변화들을 이해해야만 한다. Consider how we must alternate between synchronic and diachronic approaches as our outlook expands from shorter to longer periods of time. To begin with, some diachronic analysis precedes even a very short synchronic synthesis. We have to understand theological changes diachronically to find a way of summarizing what happened in a particular period of time.

그런데 보다 더 긴 시기들을 숙고할 때 우리의 통시적 분석은 공시적 종합에 의존한다. 우리는 먼저 여러 짧은 시기들의 공시적 종합을 하고 그 후에 어떻게 신학 구조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 짧은 시기들 사이에 변화되었는지 추적한다. 우리가 이 더 긴 시기를 통시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전체로서 종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종류의 교대적인 작업은 상세한 성경 계시에 이를 때까지 계속된다. Now, when we consider longer periods of time, our diachronic analysis depends on synchronic synthesis. First we make synchronic synthesis of several short periods, and then we trace how theological structures shifted through time between those short periods. Once we have understood this larger period of time diachronically, we can even synthesize it as a whole. This kind of back and forth continues until we reach the full length of biblical revelation.

이렇게 공시적 접근법과 통시적 접근법이 서로 다를지라도, 어느 한 접근법이 다른 접근법에 어느 정도 의존하지 않고는 추구될 수 없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한 접근법이 다른 접근법보다 더 중요하다거나 더 근본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구약의 신학을 적절하게 이해하려고 한다면 공시적 접근법과 통시적 접근법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다. As different as synchronic and diachronic approaches may be, we must never

forget that one strategy cannot be pursued without some degree of reliance on the other. It's not that one approach is more important or even more foundational than the other. Both synchronic and diachronic approaches are necessary if we're going to understand the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properly.

구약에 대한 통시적 접근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통시적 발전이 의미하는 것을 설명할 것이다. Now that we understand the basic idea of a diachronic approach to the Old Testament, we should explain what we mean by diachronic development.

## **B. 발전(Development)**

우리가 통시적 변화들이라고 말하는 대신 "발전"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두 가지 주된 개념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첫째로, 구약의 신학 구조들의 변화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상의 목적들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둘째로, 우리는 신학적 변화가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실 때만 일어나기 때문에 발전에 관하여 말한다. 그럼 먼저 구약의 신학에 있어서 일어난 모든 변화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들을 살펴보자. We use the term "development" instead of simply speaking of diachronic changes to suggest two main ideas. First, changes in Old Testament theological structures always move toward fulfilling God's purposes for history. And second, we speak of development because theological changes only occur through God's providential involvement in history. Consider first the divine purposes behind every change in Old Testament theology.

### **1. 하나님의 목적들(Divine Purposes)**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신학의 변화들을 포함한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항상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변함없는 목적들을 성취하고 있음을 단언한다. 사 46:10 은 구약 전체를 망라하는 보편적인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From one end to the other, the Scriptures affirm that everything in history, including shifts in theology, always accomplish God's unfailing purposes for

his creation. Isaiah 46:10 reflects a common outlook throughout the entire Old Testament. There we read these words:

(사 46:10 개역개정)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I make known the end from the beginning,  
from ancient times, what is still to come.**

**I say: My purpose will stand,  
and I will do all that I please (Isaiah 46:10).**

이 구절을 비롯한 많은 다른 구절들은 역사가 항상 정해진 길로 가며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신 목적들을 이룬다고 하는 구약의 보편적인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들은 폭넓고 장기적인 목적들로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특별하고 단기적인 목적들로서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이유들을 갖고 계셨다. 하나님은 영구적인 왕조와 수도를 세우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묶기를 원하셨다. 모든 시간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단기적인 목적들을 성취한 신학적인 변화들이 일어났다. This and many other passages reveal the common Old Testament outlook that history always follows the course, and reaches the goals that God has ordained for it. God's goals for history exist not only as broad, long-term goals, but also as particular, short-term goals. For instance, God has specific short-term reasons for raising David as king over Israel; he wanted to unite the people of Israel by establishing a permanent dynasty and a capital city. During every time frame, theological developments took place that accomplished God's short-term purposes.

그러나 이 강좌를 통하여 우리가 보아 온 대로 하나님은 역사에 대한 전 포괄적인 왕국의 목적도 갖고 계신다. 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형상의 사역을 통하여 그분의 하늘 통치가 온 땅으로 확장되게 하심으로써

그분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 계획은 그분의 목적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윗의 왕정이 갖는 직접적인 목적들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땅 끝까지 확장시키는 더 큰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한 단계였다. 다윗 왕조의 영속성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위해 땅을 준비시킬 그리스도 곧 다윗의 온전히 신실한 아들의 도래를 위한 무대를 제공했다. 하나님은 이 거대한 운명을 염두에 두시고 역사를 시작하셨고 역사상의 모든 사건은 반드시 이 영광스런 목적을 이룰 것이다. But as we have seen

throughout this series, God also has an all-encompassing kingdom purpose for history. From the beginning, his design has been to glorify himself by extending his heavenly kingdom to the entire earth through the work of his image and this plan unites all of God's purposes. For example, although David's kingship had immediate purposes in God's plan for Israel, it was one step toward the greater goal of extending God's kingdom to the ends of the earth. The permanence of David's dynasty set the stage for the arrival of Christ, the perfectly faithful son of David who would prepare the earth for the glorious presence of the Father. God began history with this great destiny in mind and every event in history will, without fail, reach this glorious end.

구약의 신학 구조들의 변화들은 두서가 없거나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목적이 있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단기적인 목적들을 충실하게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왕국 계획의 성취를 가져왔다. 구약의 신학적 변화들이 역사를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목적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한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 발전들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 개입과 관련하여 일어났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해 둘 필요가 있다. Shifts in Old Testament theological structures were not random or pointless. They were purposeful. They unfailingly brought about God's short-term goals as well as the fulfillment of his kingdom plan. Knowing that theological changes in the Old Testament moved history irrevocably toward God's goals, we need to add that these developments occurred in connection with God's providential involvement in history.

## 2. 하나님의 섭리(Divine Providence)

우리가 세부 사항에 관심을 쏟지 않고 보면 구약의 신학적 발전은 멀리서 본 도로처럼 보인다. 우리가 세부 사항을 간과할 때 신학적 변화들의 도로는 평탄하고 곧게 보인다. 그러가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우리는 구약의 도로가 실제로 가파른 경사들, 빠른 내리막 길들, 급한 좌회전과 우회전 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본다. 이 급격한 변화들은 하나님의 섭리 곧 그분의 피조 세계에 대한 복잡한 개입에 의해 야기된다. When we don't pay attention to details, Old Testament theological development often appears like a road seen from a distance. When we stay far above the details, the road of theological changes looks smooth and straight. But when we take a closer look, we see that the road of the Old Testament is actually filled with steep inclines, fast descents, and sharp turns to the left and the right. These abrupt shifts are caused by God's providence, his complex involvement with his creation.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어떤 계시들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방식들로 역사적 상황들과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동 가능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구약에 일어났던 어떤 신학적인 발전들은 우리에게 두서가 없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은 다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학적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다. Without a doubt, some divine revelations were connected to historical circumstances in ways we would expect. For example, God commanded Moses to build a transportable tabernacle because the Israelites needed to worship him as they traveled toward the Promised Land. At the same time, some theological developments that took place in the Old Testament often appear to us as random, or inexplicable. The only explanation that we can hold with certainty is that God simply wanted these theological shifts to take place.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많은 제사 의식들을 예로 생각해 보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많은 의식들을 명령하셨다. 놀랍게도 이러한 의식법들의 어떤 측면들은 그것들이 이스라엘 주변의 가나안 문화들을 포함한 다른 문화들의 의식들과 대조되기 때문에 분명히 거룩함의 표시처럼 보인다. 그러나 거룩함의 다른 표시들은 가나안의 문화들을 포함한 다른 문화들의 의식과 매우 비슷하다.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분의 계시에 이러한 차이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이해에 어떤 진전이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는 그저 그 이유를 잘 모른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시가 이런 방식으로 전개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다. Take for example many of the ceremonial practices God required of Israel in the Old Testament. God commanded many practices to make his people into a holy people. Surprisingly, some aspects of these ceremonial laws appear to be marks of holiness precisely because they stand in contrast with the practices of other cultures, including the Canaanite cultures surrounding Israel. But other marks of holiness are very similar to the practices of other cultures, including the Canaanites. In effect, sometimes God commanded the Israelites to distinguish themselves, and other times he commanded them to do things in ways that were very similar to their neighbors. Why did God's revelation do this? What was the reason for these differences in his revelation? Although we may make some strides in understanding, in the end we simply do not know why. The only thing we know for certain is that God determined for his revelation to develop in these ways.

세번째 유형의 신학적 발전은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다른 의지적인 피조물들이 취했던 선택들에 대한 반응을 보이셨을 때 일어났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간적인 실패로 점철되어 있고 이로 인해 하나님은 특별한 신학적 발전들을 일으키셨던 방식들로 자신을 계시하실 수 밖에 없었다. 몇 가지 실패만 들어 보자. 하나님은 출애굽의 첫 세대에게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들의 불충성으로 인해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통해 그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지만,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반역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국외로 추방하시도록 만들었다. 물론 이러한 인간적인 변화들의 어느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 밖에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때때로 성경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며 많은 신학적 발전들이 인간들과 다른 의지적 피조물들이 취한 선택들에 의해 좌우되었음을 보여준다. A third type of theological development resulted when God responded to the choices human beings and other volitional creatures made. For example, Israel's history was riddled with human failure that led to God revealing himself in ways that brought about particular theological developments. To name just a few: God offered the first generation of the Exodus possession of the Promised Land, but their infidelity led to their rejection. God's prophets offered Israel the opportunity to repent and avoid his judgment, but Israel's continuing rebellion moved God to send them into exile. Of course, none of these human changes were outside of God's sovereign control. Yet, time and again in Scripture, from a human point of view, many theological developments were contingent on the choices that human beings and other volitional creatures made.

구약의 신학적 변화들은 하나님의 목적들을 성취하기 때문에 발전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만, 우리는 또한 이 발전이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 유념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동들과 말씀들을 통하여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이런 이유로 구약의 신학적 발전들 또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났던 것이다. While we are right to speak of changes in Old Testament theology as developmental because they fulfill God's purposes, we must also keep in mind how complex this development was. God revealed himself through his actions and his words in many different ways. And for this reason, developments in Old Testament theology also took place in many different ways.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시적으로 다루었던 성경의 저자들이나 등장 인물들에 대한 성경적인 예에 관심을 기울여 보려고 한다. 우리의 목적상 통시적 발전에 대한 우리의 관심사를 밝히 보여주고 정당화해 주는 한 가지 예만 살필 것이다. At this point, we should turn to a biblical example of

authors or characters in the Bible treating the Scriptures diachronically. For our purposes, we'll look at just one example that will both illustrate and legitimate our concern with diachronic developments.

### C. 예(Example)

마 19:3 에는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In Matthew 19:3, some Pharisees tested Jesus with this question:

**(마 19:3)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남편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Is it lawful for a man to divorce his wife for any and every reason? (Matthew 19:3).**

여기서 제기된 질문은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의 학파들 가운데 논쟁이 있는 문제였다. 그들의 견해 차이는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었다. 모세가 신 24:1 에 기록한 말씀을 들어보라. The question raised here was a matter of debate among rabbinical schools in Jesus' day. And their differences were based on Moses' teaching in Deuteronomy. Listen to what Moses wrote in Deuteronomy 24:1:

**(신 24:1 개역개정)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If a man marries a woman who becomes displeasing to him because he finds something indecent about her, and he writes her a certificate of divorce (Deuteronomy 24:1).**

예수님 당시에 논란이 된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란 어구의 의미였다. 어떤 랍비들은 이 어구가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의 모든 일이 이혼의 적법한 사유가 됨을 암시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다른 랍비들은 이 어구가 성적인 부정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먼저 마 19:4-6 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들어보라. In Jesus' day, there was controversy over the meaning of the phrase "something indecent." Some rabbis believed this expression implied that divorce was legitimate for nearly anything that displeased the husband, but other rabbis interpreted the term to mean only sexual immorality. Listen to the way Jesus first responded to the Pharisees in Matthew 19:4-6:

**(마 19:4-6 개역개정)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Haven't you read ... that at the beginning the Creator "made them male and female," and said, "For this reason a man wi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be united to his wife, and the two will become one flesh?" So they are no longer two, but one. Therefore what God has joined together, let man not separate (Matthew 19:4-6).**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창세기 1 장과 2 장에 근거하여 결혼에 관한, 짧은 공시적 요약을 하셨다. To answer the Pharisees' question, Jesus gave a brief synchronic summary of marriage based on the first chapters of Genesis.

예수님께서 죄가 창조 질서를 오염시키기 전 곧 "태초에" 있던 중요한 신학 구조들에 대한 많은 특별한 특징들에 관심을 기울이신 것을 주목하라. 창 1:27 을 언급하시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것을 지적하셨다. 창 2:24 을 인용하시며 예수님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시며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셨다. 결혼에 관한 원래의 창조 규례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었다. Notice that Jesus drew attention to a number of particular features about important theological structures “at the beginning,” before sin had corrupted the created order. Referring to Genesis 1:27, he noted that God had made humanity “male and female.” Quoting from Genesis 2:24, Jesus said that “for this reason a man wi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be united to his wife, and the two will become one flesh.” Jesus then drew the conclusion, “what God has joined together, let man not separate.” The original creation ordinance of marriage was that a man and a woman who married became one flesh.

예수님께서 창조시의 결혼에 관한 신학적 관점을 서술하시자,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 장에 관한 명시적인 질문을 그분에게 던졌다. 마 19:7 에서 그들이 말한 것을 들어보라. After Jesus described the theological perspective on marriage at the time of creation, the Pharisees asked him explicitly about Deuteronomy 24. Listen to what they said in Matthew 19:7:

**(마 19:7 개역개정)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Why then ... did Moses command that a man give his wife a certificate of divorce and send her away? (Matthew 19:7).**

일 세기의 신념을 따르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결혼에 관한 모세의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하신 신학 구조들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에 관하여 말했던 것에 비추어 자신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어떻게 변호하실 수 있었는가? In line with beliefs in the first century, Jesus and the Pharisees knew that Moses’ teaching about marriage was harmonious with the theological structures God had ordained in the beginning. So, how could Jesus defend what he had just said in light of what Moses had said about divorce?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며 예수님은 중요한 통시적 발전 곧 신학적 변화가 창조 시기와 모세 시대 사이에 일어났음을 설명하셨다. 마 19:8 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In response, Jesus explained that a significant diachronic development, a theological change, had taken place between the time of creation and the period of Moses. As he put it in Matthew 19:8:

**(마 19:8) 모세는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너희의 아내 버리는 것을 허용하였으나 시초부터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다. Moses permitted you to divorce your wives because your hearts were hard. But it was not this way from the beginning (Matthew 19:8).**

여기서 예수님은 모세가 그의 율법들을 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들을 통해 결혼에 대한 신학을 변경시키심으로써 인간의 죄에 대하여 반응하셨음을 설명하셨다. 성경을 통시적으로 보시며, 예수님은 “시초부터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인정하심으로써 모세 시대를 아담의 때와 비교하셨다. Here Jesus noted that by the time Moses gave his laws, God had reacted to human sin by shifting the theology of marriage in certain ways. Looking at Scriptures diachronically, he compared Moses’ time with Adam’s day by saying, “it was not this way from the beginning,” and then by acknowledging that in the time of Moses the “hearts [of the Israelites] were hard.”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들이 있을 때 이혼이 하나님의 이상은 아니었을지라도 이혼을 허용하심으로써 인간의 이 완악한 상황에 대처하셨다고 결론지으셨다. 신명기 24 장의 율법은 이스라엘의 완악한 마음에 대한 반응으로 주신 하나님의 허용적 규례였다. So, Jesus concluded that God responded to this human condition by permitting divorce for certain reasons, even though it was not God’s ideal. The law of Deuteronomy 24 was God’s permissive regulation in response to Israel’s hardness of heart.

예수님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통시적 평가는 그분으로 이혼의 사유들에 대한 매우 제한적인 견해를 갖게 하였다. 마 19:9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Jesus' diachronic assessment of marriage and divorce led him to draw a highly restrictive view of the grounds for divorce. As we read in Matthew 19:9.

**(마 19:9)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과 결혼하면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I tell you that anyone who divorces his wife, except for marital unfaithfulness, and marries another woman commits adultery (Matthew 19:9).**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약 신학의 통시적 발전에 비추어 결혼과 이혼을 이해하셨음을 본다. 처음에는 이혼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었으나 후에 죄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들을 완악하게 만들었을 때 이혼은 허용되긴 했지만 지지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 경우에는 인간의 상황 변화가 구약의 신학 변화를 가져왔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구약을 다루셨던 방식은 구약의 신학을 통시적으로 다루는 것이 오늘의 우리에게도 적법하고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So we see that Jesus understood marriage and divorce in the light of diachronic developments in Old Testament theology. At first, divorce was unthinkable. Later, when sin had hardened the hearts of God's people, divorce was permitted but not endorsed. In this case, a change in the human condition led to a change in Old Testament theology. The way that Jesus handled the Old Testament here demonstrates that treating Old Testament theology diachronically is legitimate and important for us today as well.

지금까지 구약의 통시적 접근법에 대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으므로 이제 이번 강의의 두번째 중요한 주제인 시대적인 신학 발전들을 살펴보자. Now that we have a basic orientation toward diachronic approaches to the Old Testament, we should turn to the second main topic in our lesson: epochal theological developments.

### III. 시대적 발전들(EPOCHAL DEVELOPMENTS)

당신이 지난 해에 관하여 친구에게 편지를 쓴다고 상상해 보라. 당신이 취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당신의 삶에서 매우 중요했던 요소들이 지난 해를 구별할 수 있는 시기들로 나누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그 요소들이 확실하게 함께 묶어지는지 설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당신은 당신의 가정 생활, 교회 생활, 그리고 심지어 당신의 내적인 영적 상태가 지난 해의 각 달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편지의 문단들은 “이것이 일 월에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 월에 일어났다.” 등과 같이 시작할 것이다. Imagine you were going to write a letter to a friend about the past year of your life. One strategy you might adopt would be to explain how important factors in your life came together in certain ways so that they broke the year into distinguishable periods. For instance, you could describe how your family life, your church life, and even your inner spiritual condition changed each month of the year. The paragraphs of your letter might begin something like this: “This is what happened in January”; “These things happened in February” and so on.

이와 매우 흡사한 방식으로, 자주 성경신학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들이 역사를 중요한 시대 혹은 시기들로 나누게 한 방식들의 관점에서 구약의 신학 발전을 묘사한다. In much the same way, biblical theologians often describe the development of Old Testament theology in terms of the ways God’s revelations divide history into major periods or epochs.

구약 신학의 시대적 발전들을 탐구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다룰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구약의 여러 시대들의 다양한 신학적 강조들을 살필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시대들 사이에 유기적인 신학적 통일성을 탐구할 것이다. 그럼 먼저 구약이 특별한 신학적 강조점들을 갖는 시대들로 나누어지는 방식들을 살펴보자. To explore epochal developments of Old Testament theology, we will touch on two issues. First, we will look at the diverse theological emphases of different ages in the Old Testament. And second, we’ll explore the organic theological unity among the ages. Let’s look first at

the ways the Old Testament divides into epochs that had particular theological emphases.

### **A. 다양한 강조들(Diverse Emphases)**

구약의 역사를 중요한 신학적 시기들로 나누는 많은 방식들이 있다. 우리는 지리적인 구분들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문학적인 구분에 비추어 구약을 나눌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이 강좌의 이전 강의들에서 언급했던 구약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 곧 하나님의 언약들의 영향을 다시 살핌으로써 시대적 발전들을 설명하려고 한다. There are many ways to divide the history of the Old Testament into major theological periods. We could focus on geographical divisions; we could divide the Old Testament in terms of its literary divisions. But in this lesson we'll illustrate epochal developments by returning to an important feature of the Old Testament we have mentioned in earlier lessons of this series: the influence of divine covenants.

이전 강의에서 보았듯이 구약은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관계를 언약의 세 가지 역학적 원리에 비추어 묘사한다. 그 세 가지 역학적 원리는 하나님의 은택의 제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충성의 필요성, 순종에 따른 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라는 결과이다. 언약의 이러한 역학적 원리들은 구약의 전체에 걸쳐 되풀이되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구약의 역사에 나타난 많은 신학 구조들을 조직화하는데 유용하다. As we saw in the preceding lesson, the Old Testament characterizes every divine-human relationship in terms of three covenantal dynamics: the display of divine benevolence, the necessity of human loyalty to God, and the consequences of blessings for obedience and curses for disobedience. These covenantal dynamics remained constant throughout the entire Old Testament. So, they are useful for organizing the many theological structures that appear in Old Testament history.

그러나 구약은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에서만 언약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독특한 신학적 강조점들을 가지고 중요한 언약을 세우셨던 여섯 시기가 있었다. 하나님은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을 세우셨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의 목적상, 각 주요



언약의 신약적 강조점들에 대한 빠른 개관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But the Old Testament was not merely covenantal in this general sense. There were six times when God established major covenants with distinctive theological emphases: the covenants with Adam, Noah, Abraham, Moses, David and the New Covenant. For our purposes in this lesson, it will suffice to give a quick overview of the theological emphases of each major covenant.

구약의 여섯 가지 언약은 세 개의 주요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아담과 노아와 맺은 우주적인 언약이고, 둘째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맺은 민족적 언약이고, 셋째는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된 새 언약이다. 그럼 우주적 언약을 시작으로 이 세 그룹의 언약을 살펴보자. The six Old Testament covenants fall into three main categories. First, the universal covenants with Adam and Noah. Second, the national covenants with Abraham, Moses, and David. And third, the New Covenant predicted by Old Testament prophets. Let's look at all three groups, beginning with the universal covenants.

### 1. 우주적 언약들(Universal Covenants)

우리가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을 "우주적"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이 하나님과 온 인류 사이에 맺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언약들의 신학 구조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모든 사람의 관계에 대하여 많은 것을 말해 준다. We speak of the covenants with Adam and Noah as "universal" because they were made between God and all of humanity. So, the theological structures of these covenants tell us much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all people.

아담 언약은 창세기의 처음 장들에서 세워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언급한다. "언약"으로 보통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 [브리트]가 창세기의 처음 세 장에는 나오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다른 강좌들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담과의 관계를 언약 혹은 적어도 언약과 매우 유사한 협정으로 이해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 The covenant with Adam refers to the governance of divine-human relations established in the opening chapters of Genesis. Although the Hebrew word *berit*, normally translated

"covenant," does not appear in the first three chapters of Genesis, we have seen in other series that there is ample evidence for understanding God's relationship with Adam as a covenant or at least as an arrangement closely resembling a covenant.

하나님의 첫 언약적 경영으로서 이 언약의 신학적 강조점들은 모든 성경에 매우 기본적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근본의 언약"이라고 부를 수 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시대에 계시된 모든 특별한 신학 구조는 아담 언약의 강조점들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았다. 그것들은 모두 죄가 들어 오기 전에 인간을 그분의 동산에 두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호의적이시고, 죄가 들어 온 후에 인간의 악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가를 강조했다.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는 모든 인간이 그들의 창조주를 충성스럽게 섬길 기본적인 책임을 갖고 있음 또한 강조했다. 더욱이 창세기의 처음 장들은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거나 불순종함에 따라 그들에게 임한 복과 저주의 결과들도 밝히고 있다. As the first divine covenantal administration, the theological emphases of this covenant were so basic to all of Scripture that we may call it "the covenant of foundations." Every particular theological structure revealed from the days of Adam to Noah was deeply influenced by the emphases of Adam's covenant. They all stressed how God was benevolent before sin by placing humanity in his garden and how God was merciful after sin by promising humanity's eventual victory over evil. The relationship between Adam and God also emphasized that all human beings have a basic responsibility of loyal service to their creator. Moreover, these chapters in Genesis illustrate the consequent blessings and curses that come upon human beings as they choose to obey or disobey what God has commanded.

두번째 우주적 언약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이다. 이 언약은 창세기 6 장과 9 장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노아 언약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한 성향을 고려하시며 자연계의 안전을 보장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인내를 확장시키셨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 언약을 "안정의 언약"이라고 부를 수 있다. 창 8:21-22 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The second universal covenant is God's covenant with Noah. This covenant is explicitly mentioned in Genesis 6 and 9. In Noah's covenant God took into account human propensity for sin and extended patience toward us by providing stability in nature. For this reason, we may speak of this covenant as "the covenant of stability." As God said in Genesis 8:21-22:

**(창 8:21-22) 그의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할지라도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내가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땅이 있는 한,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Never again will I curse the ground because of man, even though every inclination of his heart is evil from childhood. And never again will I destroy all living creatures, as I have done. As long as the earth endures, seedtime and harvest, cold and heat, summer and winter, day and night will never cease (Genesis 8:21-22).**

창 8:21 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사실을 고려하셨다. 그래서 인간의 끊임없는 죄성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은 자연계에 새로운 질서가 유지되는 일반 은총을 확장시킬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시며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분의 목적들을 성취할 수 있게 하셨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안전하고 예측가능한 자연계를 제공하셨다. As verse 21 says, God considered the fact that "every inclination of humanity's heart is evil from childhood." So, in response to humanity's persistent sinfulness, God established a long-term strategy of extending the common grace of a new order for nature so that redeemed humanity could fulfill his purposes. God did this by providing a safe, predictable natural realm within which we could stumble and rise again to serve him.

노아 언약의 역학적 원리들의 핵심은 노아로부터 아담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계시를 특징지었다. 이 시기 동안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 작용은 자연계의 장기적 안정이라는 하나님의 은택,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인간에 대한 목적들에 충성해야 할 보편적인 요구, 인간들이 지상 도처에 구별된 나라들을 세우며 복과 저주의 결과를 맞이할 구체적인 방식들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았다. The focus of the dynamics of Noah's covenant characterized every divine revelation from Noah to Abraham. Every divine human interaction during this time was deeply influenced by God's benevolence of long term stability in nature, the universal requirement of loyalty to God and his purposes for all human beings, and specific ways in which human beings faced the consequences of blessings and curses as they formed distinct nations spreading throughout the earth.

## 2. 민족적 언약들(National Covenants)

우주적 언약에 이어서, 하나님은 그분의 특별한 백성인 이스라엘과 민족적 언약을 세우셨다. 이 민족적 언약에는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이 있다. 이 역사 시기 동안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적 관심을 오직 한 민족에게 주로 집중하시며 나머지 인간들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할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우셨다. Following the universal covenants, God established national covenants with his special people Israel: the covenants with Abraham, Moses and David. In these stages of history, God narrowed his covenantal attention primarily to just one ethnic group, establishing Israel as the nation that would lead the rest of humanity in service to God.

우리는 창세기 15 장과 17 장에서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발견한다. 아브라함 언약은 이스라엘의 숫적인 팽창과 그곳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으로 확장시키도록 되어 있는 약속의 땅에 대한 소유에 관한 약속들을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아브라함 언약은 "약속의 언약"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We find explicit references to Abraham's covenant in Genesis 15 and 17. The covenant with Abraham emphasized promises for the numerical increase of Israel and possession of the Promised Land, from which Israel was to spread God's blessings to the entire world.

And for this reason Abraham's covenant may be characterized as a "covenant of promise."

우리가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의 시기를 연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강조점들이 그 전체 시기를 특징짓고 있음을 발견한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향하신 특별하신 은택,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요구하신 구체적인 충성,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받은 복과 저주에 대한 예들이 자주 나온다. Whenever we study the stretch of time between Abraham and Moses, we find that the emphases of God's covenant with Abraham marked the entire period. God's special benevolence toward Abraham and his descendants, his specific requirements of loyalty from the patriarchs, and examples of blessings and curses for the fathers of Israel appear time and again.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을 때 모세를 통하여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주된 기록은 출애굽기 19-24 장에 나온다. 이 장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 두 지파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십계명과 언약서를 주심으로써 그들로 정치적으로 통일된 나라가 되게 하셨는지를 강조한다. 이런 이유로 모세 언약은 "율법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다. God made a second covenant with Israel through Moses when he brought them to Mount Sinai. The primary record of God's covenant with Israel through Moses appears in Exodus 19-24. These chapters emphasize how God gathered the twelve tribes and shaped them into a politically unified nation by giving them the Ten Commandments and the Book of the Covenant. For this reason, the covenant with Moses may be called the "covenant of law."

모세와 다윗 사이의 시기에 계시된 신학 구조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맺으신 언약의 강조점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았다.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택으로 제시되었다. 율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방식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른 복과 저주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들이 이스라엘 국가의 초기 역사 기간에 잘 드러나 있다. The theological structures revealed in the time between Moses and David were

deeply influenced by the emphasis of Moses' covenant with God. The law was presented as a divine benevolence to Israel. The law specified ways in which Israel was to be loyal to God. And the particular consequences of blessings and curses were demonstrated in Israel's early national history in accordance with Moses' law.

그 후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통치 아래서 완전한 제국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또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께서 다윗 생애의 어느 시기에 이 언약을 공식적으로 세우셨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무엘상 7 장, 역대상 17 장, 시편 89 편과 132 편은 다윗 언약의 기본적인 내용을 전하고 있다. 다윗 언약은 이스라엘에서의 왕직을 강조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윗 언약은 다윗의 왕적 계보의 영속성,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예루살렘, 그곳의 성전에서의 예배 등을 약속했다. 다윗의 개별적인 후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때 고통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이스라엘의 왕조로 선택하신 것은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이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다윗 언약을 "왕정의 언약"이라고 부를 수 있다. Later on, when Israel became a full-fledged empire under the rule of David, God also made a covenant with David. We do not know precisely when in David's life God formally established this covenant, but 2 Samuel 7, 1 Chronicles 17, Psalm 89 and Psalm 132 convey the basic content of David's covenant. David's covenant emphasized kingship in Israel. To be more specific, it promised the endurance of David's royal line, Jerusalem as Israel's capital and worship at its temple. Although individual descendants of David would suffer when they turned from God, God's choice of David's family as Israel's imperial dynasty would never be forsaken. For this reason, we may call David's covenant Israel's "covenant of kingship."

다윗 왕정의 언약의 역학적 원리들은 다윗의 시대로부터 구약의 마지막까지의 신학 구조들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에게 그리고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많은 호의들을 베푸셨다. 하나님은 다윗 계보의 왕들과 그들의 권위 아래 있는 백성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셨다. 이스라엘 그리고 심지어 다른 나라들에 임한 복과 저주의

결과들은 다윗의 왕적 계보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The dynamics of David's royal covenant deeply influenced theological structures from the time of David to the end of the Old Testament. In a variety of ways, God granted many kindnesses to and through the house of David. He required loyalty from the Davidic kings and the nation under their authority. And the consequences of blessings and curses for Israel and even for other nations were directly or indirectly tied to the royal line of David.

우주적 언약과 민족적 언약의 이러한 강조점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구약에 언급된 마지막 주요 언약인 새 언약을 살펴보자. With the emphases of the universal and national covenants in mind, we should look at the new covenant, the last major covenant mentioned in the Old Testament.

### **3. 새 언약(New Covenant)**

구약의 더 늦은 시기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국외로 추방될 위기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국외 추방 후에 세워질 언약에 관하여 말했다. 그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것의 마지막 절정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었다. 이러한 복들과 함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마지막 언약을 맺으실 것을 말했다. 이 절정의 언약은 성경의 여러 곳에 언급되어 있지만 어떻게 렘 31:31 이 새 언약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말하는지 들어보라. In the later history of the Old Testament, the prophets of Israel faced the time when Israel would go into exile. They spoke, however, of a covenant that would be established after the exile. At that time, Israel would repent of sin and God would bring history to its final, climactic stage. And along with these blessings, the prophets said that God would make a final covenant with his people. This climactic covenant is mentioned many places in the Bible, but listen to how Jeremiah 31:31 speaks directly of the new covenant.

**(렘 31:31)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날들이 이를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The time is coming,” declares the Lord, “when I will make a new covenant with the house of Israel and with the house of Judah.” (Jeremiah 31:31).**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국외 추방 이후에 그분의 백성을 다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분의 나라를 땅 끝까지 확장하시겠다는 그분의 약속들을 성취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의도로 주어졌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새 언약을 “성취의 언약”이라고 부를 수 있다. The new covenant was designed to govern God’s people when God fulfilled his promises to re-establish his people after exile and to spread his kingdom through them to the ends of the earth. And for this reason, we may speak of the new covenant as the “covenant of fulfillment.”

우리는 앞으로 있을 강의들에서 새 언약에 대하여 보다 더 자세히 살필 것이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것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간단히 요약만 할 것이다. 신약은 우리에게 이 성취의 시대가 그리스도의 초림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역, 그분의 부활이 보여주는 승리, 그분의 승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도들의 사역 등의 모든 사건들은 성경 역사에서 새 시대를 여는 것들이었다. 우리 시대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복음을 통하여 지상의 구석구석까지 확대될 때 새 언약이 지속되고 있음을 체험한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새 언약의 완성을 보게 될 것이다. We will look more closely at the new covenant in future lessons. So at this point we will simply summarize how it unfolded. The New Testament tells us that this age of fulfillment was inaugurated by the first coming of Christ. His work of redemption on the cross, the victory of his resurrection, his ascension,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at Pentecost and the work of the apostles — all of these events initiated this new epoch in biblical history. In our day, we experience the continuation of the new covenant as faith in Christ is spreading to the corners of the earth through the gospel. And we will see the



consummation of the new covenant when Jesus returns and makes all things new.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이르는 모든 특별한 신학 구조를 특징지을 것이다. 역사상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고 사도들을 통하여 사역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택은 그 이전보다 더 컸다. 신약의 계시는 우리가 우리 시대에 많은 은택들을 받는 수없이 많은 방식들을 상기시켜 주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온전한 유업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The new covenant characterizes every particular theological structure from Christ's first coming to his glorious return. God's benevolence at this point in history was greater than ever before as he worked through Christ, poured out the Holy Spirit and ministered through the apostles. New Testament revelation also reminds us of the countless ways we receive many benevolences in our day, but when Christ returns we will receive the kindness of our full inheritance in the new heavens and new earth.

이것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 대한 신약의 기록은 모든 사람들이 그분에게 충성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당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대에도 계속 적용되고 있다.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그분에게 믿을 수 있는 충성을 바칠 것임을 설명한다. In addition to this, the New Testament record of Jesus' time on earth emphasizes that all people were required to be loyal to him. This was true in his day, and it continues to be true in our day. And the New Testament explains that when Christ returns, we will all give him unflinching loyalty.

신약의 계시는 복과 저주에 대한 새 언약의 결과들도 보여준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던 때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접촉했던 사람들이 취한 선택에 따라 엄청난 결과들이 주어진 것을 보고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들을 꼼꼼히 생각해 보도록 하는 관점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약의 비전은 최종적인 영원한 심판과 보상에 대한 언약적 결과들을 포함하고 있다.

New Testament revelation also displays the New Covenant consequences of blessings and curses. It reports the enormous consequences for the choices made by those who had contact with Christ and the apostles during the inauguration of Christ's kingdom. It specifies ways in which we are now to consider the consequences of obedience and disobedience. And of course, the New Testament vision of Christ's return involves the covenant consequences of final, eternal judgment and reward.

이 여섯 가지 하나님의 언약들은 그것들이 계시된 시대의 신학에 골고루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주요한 역사 시대들의 다른 강조점들을 이해하는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아담 언약은 근본의 시대를 시작하였다. 노아 언약은 자연계의 안정의 시대를 시작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을 위한 약속들을 세웠다. 모세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을 소개했다. 다윗 언약은 왕정을 강조했다. 새 언약은 그 이전의 모든 언약들이 궁극적으로 성취되게 하였다. So we see that the six major divine covenants so permeated the theology of the times in which they were revealed that they provide us with ways of understanding the different emphases of major historical epochs in the Old Testament. Adam's covenant introduced the age of foundations; Noah's covenant began an age of natural stability; Abraham's covenant established promises for Israel; Moses' covenant introduced God's law; David's covenant emphasized kingship and the New Covenant brought all of these earlier covenants to their ultimate fulfillment.

## **B. 유기적 통일성(Organic Unity)**

각 언약 시대의 강조점들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이 시대들의 신학의 유기적 통일성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구약 역사의 시대들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들은 생명체의 성장 단계들처럼 서로 연속성을 보이고 있었다. Despite the differences in emphases in each covenant epoch, we may also speak of the organic unity of the theology of these ages. The epochs of Old Testament history were not entirely different from each other. Rather, they exhibited continuity with each other like the stages of growth in living organisms.

이 유기적 통일성을 보다 더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여러 언약 시대 사이의 관계들을 세 가지 관점에서 탐구할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구약의 언약들이 하나님 나라의 경영들로서 통일되는지 설명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더 이른 언약들이 더 늦은 언약들에 미치는 권위를 검토할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더 이른 언약들을 더 늦은 언약들에 적용하는 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그럼 먼저 하나님 나라의 경영들로서 언약들의 통일성을 살펴보자. To understand this organic unity more fully, we'll explore three aspect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different covenant ages. First, we'll note how Old Testament covenants were unified as administrations of God's kingdom. Second, we'll look into the resulting authority of earlier covenants for later covenants. And third, we'll speak of the need for application of earlier covenants to later covenants. Let's look first at the unity of God's covenants as administrations of his kingdom.

### **1. 왕국 경영(Kingdom Administration)**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요한 언약들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역사적 단계들을 통하여 그분의 나라를 경영하시는 주된 방식이었다. 구약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으로 확장시키는 목적을 향해 진행될 때 하나님은 여러 언약들을 세우시고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방식으로 그분의 나라 안에서의 삶을 지도하셨다. 그러나 구약의 모든 언약들은 동일한 궁극적인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온 세상으로 확장시키려는 목적을 공유했다. The major divine covenants in Scripture served as the main ways God administered his kingdom through its various historical stages. As Old Testament history moved toward the goal of spreading God's reign throughout the world, God established different covenants to guide life in his kingdom in particular ways at particular times. But all Old Testament covenants shared the same ultimate goal: to extend God's glorious kingdom throughout the earth.

언약들의 이러한 경영적 기능은 우리로 언약들 사이의 많은 통일성을 기대하도록 해 준다. 언약들은 서로를 무시하거나 서로 상반되는 독립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사실을 말하면, 구약의 언약들이 나타나는 순서는

그것들의 통일성을 보여준다. 아담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목표와 그 목표를 도달하는데 있어서 인간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들을 수립했다. 노아 언약은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성취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무대로서 자연계의 안정을 수립했다. 아브라함 언약은 이스라엘을 나머지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할 민족으로 세웠다. 모세 언약은 이 주도적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지도할 율법을 계시했다. 다윗 언약은 그들이 이 동일한 목표를 향해 더욱 더 나아가도록 지도할 영원한 왕조를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새 언약은 인간의 실패를 영원히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성취한다. 구약의 언약들 사이의 이러한 논리적인 암시들은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경영들로서 모두 통일되어 있음을 보게 한다. This administrative function of covenants should lead us to expect a great deal of unity among the covenants. They were not separate programs that disregarded or contradicted each other. They were inseparably connected to each other by their one kingdom purpose. In fact, the order in which Old Testament covenants appear reveal their unity. Adam's covenant established the foundational concepts of the goal of God's kingdom and humanity's service in reaching that goal. Noah's covenant established natural stability as the arena within which failing humanity could have opportunity to reach the goal of God's kingdom. Abraham's covenant established Israel as the ethnic group that would lead the rest of humanity toward the goal of God's kingdom. Moses' covenant revealed the law that would guide this leading nation toward the goal of the kingdom. David's covenant brought a permanent dynasty to guide them further toward this same end. And finally, the New Covenant permanently remedies the failures of humanity and completes the goal of God's kingdom. These logical implications among Old Testament covenants indicate that they were all unified as administrations of God's kingdom.

지금까지 구약의 언약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한 가지 목표를 이루어가는지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그것들의 권위의 관점에서 그것들의 유기적 통일성을 살필 것이다. Now that we see how Old Testament

covenants administered the one goal of God's kingdom, we should also look at their organic unity in terms of their authority.

## 2. 지속적인 권위(Abiding Authority)

어떻게 더 이른 언약의 시기들이 더 늦은 시기의 신학 구조들에서 인정되었는지 살펴보면, 금방 더 이른 언약들의 권위가 항상 더 늦은 언약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이것이 사실임을 보여줄 방법들이 매우 많지만, 우리는 간단히 두 가지 방향에서만 살필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모세 이전의 언약들의 지속적인 권위를 살필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모세 언약의 지속적인 권위를 살필 것이다. When we look at how earlier covenant ages were acknowledged in the structures of later periods, it quickly becomes evident that the authority of earlier covenants always extended to later covenants. There are countless ways to show that this is true, but for simplicity's sake we will look in just two directions; first, the continuing authority of covenants before Moses; and second, the continuing authority of the covenant with Moses.

첫째로, 모세가 모세 이전의 언약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보면,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그것들이 그 자신의 시대에 대하여 권위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 모세가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에 대하여 기록한 창세기를 생각해 보라. 이 세 언약들은 모세 시대보다 훨씬 더 일찍 세워졌지만 모세는 그것들이 그 자신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권위를 갖고 있음을 단언하기 위해 창세기에 그것들에 관하여 기록했다. 모세는 더 이른 언약들 곧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 대치되었거나 폐지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모세가 그것들에 대하여 창세기에 기록한 것은 그것들이 시내산에서 세워진 율법의 언약 아래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다스릴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더 이른 시기의 언약들은 더 늦은 모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지도할 권위를 계속 갖고 있었다. When we see how Moses handled divine covenants that came before him, there can be little doubt that he considered them authoritative for his own day. Consider the book of Genesis, where Moses wrote about the covenants with Adam, Noah and Abraham. These three

covenants were established much earlier than Moses' day, but he wrote about them in Genesis to affirm their authority for the Israelites living in his day. Moses did not believe that the earlier covenants of Adam, Noah and Abraham had been replaced or annulled. He wrote about them as he did in Genesis because he believed that they had authority over the lives of the Israelites under the covenant of law established at Sinai. The earlier covenants still had authority to guide the lives of people living in the later time of Moses.

둘째로, 모세 언약 자체를 살펴보면, 그것이 모세 시대 이후에도 지속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대하 6:16 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다윗 언약과 모세 언약을 함께 언급하였는지 들어보라. In the second place, when we consider the covenant with Moses itself, it's also apparent that it had continuing authority after his time. For instance, listen to the way Solomon spoke of David's covenant and Moses' covenant together in 2 Chronicles 6:16:

**(대하 6:16)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님의 종, 제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지켜 주십시오. [그에게] 당신님은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같이 네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서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너에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Now Lord, God of Israel, keep for your servant David my father the promises you made to him when you said, “You shall never fail to have a man to sit before me on the throne of Israel, if only your sons are careful in all they do to walk before me according to my law.” (2 Chronicles 6:16).**

이 구절에서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내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너에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말하며 다윗과 맺은 왕정의 언약을 먼저 언급하였다. 그러나 솔로몬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모세 언약으로 거슬러 올라갔는지 주목하라. 부연하여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같이 네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서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다윗의 자손이 계속 통치하게 될 것이란 약속을 언급했다. 여기서 솔로몬의 말은 다윗 언약이 수립된 이후에도 여전히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권위적인 말씀으로 남아있는 것을 밝히 보여준다. In this passage, Solomon referred first to the covenant of kingship with David when he said that David “shall never fail to have a man to sit before me on the throne of Israel.” But notice how smoothly Solomon transitioned to the Mosaic covenant. He added that David’s sons would reign “if only your sons are careful in all they do to walk before me according to my law.” Solomon’s words here demonstrate that the Law of Moses remained authoritative for the people of God ev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David’s covenant.

이제 곧 우리가 보아 온 것에 대한 제한 사항들을 덧붙일 것이지만, 위에서 본 예들은 구약의 더 늦은 언약들이 하나님께서 더 이른 언약들을 통해 계시하셨던 것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더 이른 언약 시대들의 신학 구조들은 더 늦은 시대들에서 지속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다. Now in a moment we’re going to add some qualifications to what we have seen, but these examples indicate that later Old Testament covenants did not discount the authority of what God had revealed in earlier covenants. On the contrary, the theological structures of earlier covenant epochs had abiding authority in later epochs.

### **3. 확장된 적용(Extended Application)**

더 이른 언약들의 지속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른 언약들의 신학을 더 늦은 시기들로 확장하는 일에는 항상 세심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인식해야 한다. 더 이른 시대들의 원리들은 더 늦은 시대에 적합한 방식으로 적용되어야만 한다. Now, as important as it is to recognize the abiding authority of earlier covenants, we must also acknowledge that extending the theology of earlier covenants into later periods always required careful application. The principles of earlier epochs had to be applied in ways that were appropriate for later times.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라. 모든 부모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훈을 줄 때 그 교훈이 그들의 나이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우리는 네 살짜리 아이에게 “난로를 만지지 말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당신이 열 여덟 살 된 딸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라고 부탁했는데 그 딸이 당신에게 “저는 할 수 없어요. 저에게 전에 난로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라고 말한다고 상상해 보라. 이럴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당신은 “더 이상 너는 네 살짜리 아이가 아니다. 이제 너는 난로를 만져도 된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딸이 부주의해서 화상을 입었다고 가정해 보라. 그러면 당신은 “왜 더 조심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난로는 위험하다고 말했지 않느냐?”라고 말할 것이다. 그 때 딸이 “아빠는 저에게 한 번도 난로가 위험하다고 말해 준 적이 없잖아요.”라고 대꾸할지 모른다. 이 때 당신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당신은 “내가 너에게 난로를 만지지 말라고 말할 때마다 난로가 위험한 것이라고 너에게 경고했다.”라고 바르게 말할 것이다. 당신이 딸에게 이렇게 말할 때, 당신은 딸에게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당신은 딸이 네 살짜리 어린애처럼 행동하지 않기를 원하고, 다른 한편으로 당신은 딸이 네 살때 받은 교훈을 잊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Think about it this way. Every parent knows that when we give instructions to children, those instructions have to be appropriate for their ages. For instance, most of us would tell a four year old, “Don’t touch the stove.” But imagine one morning you ask your 18-year-old daughter to cook breakfast, and she says to you, “I can’t. You told me not to touch the stove.” Well, how would you respond? You might say something like, “You’re not four years old anymore. It’s okay for you to touch the stove now.” But suppose she is careless and burns herself. Then, you might say, “Why weren’t you more careful? I’ve told you that stoves are dangerous.” And she might protest, “You’ve never said to me that stoves are dangerous.” How would you reply to that? You might say rightly, “I warned you that stoves are dangerous every time I told you not to touch the stove.” As you talk to your daughter this way, you’re telling her two main ideas. On the one hand, you don’t want her to



return to behaving like a four year old, but on the other hand, you also don't want her to forget the lessons you taught her as a four year old.

이와 마찬가지로 구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성장해 가는 어린애처럼 다루셨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은 두 가지 일을 기억해야만 했다. 첫째로, 그들은 그들이 더 이른 언약 시대에 사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다 최근에 보다 더 충만하게 주셨던 계시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둘째로, 더 늦은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른 시대에 가르쳐 주셨던 지혜를 잊어서는 안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행위 계시와 말씀 계시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더 이른 시대의 신학을 적용해야 했다. 예를 들어, 노아 언약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근본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지만, 아담 언약의 원리들은 노아 당시에 민족들이 세계로 뿔어나갈 때 자연계의 안정에 대한 강조에 적합하도록 조정되었다. In much the same way, God dealt with his people throughout the Old Testament as maturing children. And for this reason, God's people had to remember two things. First, they were not to turn back to living as if they were in an earlier covenant age. To do that would be to reject more recent, fuller revelations from God. But second, God's people in later periods were never to forget the wisdom of what God had taught in earlier ages. They were to apply the theology of earlier epochs in ways that took account of God's new act and word revelations. For instance, Noah's covenant built on the theology of God's foundational covenant with Adam, but the principles of the first covenant were adjusted to fit the emphasis on natural stability as the nations spread around the world in Noah's day.

아브라함 언약은 아담 시대의 근본 원리들과 노아 시대의 자연계의 안정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시대에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좁혀서 그분이 호의를 베푸시는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로 초점을 맞추셨다. 이런 이유로 더 이른 언약들의 우주적인 신학 구조들은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적용되어야만 했다. 예를 들어, 아담에게 주셨던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은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 번성하고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일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었다. 자연계의 안정에 대한 약속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약속의 땅에서 자연의 소산물을 즐길 때 그들에게 적용되었다. Abraham's covenant embraced the foundational principles of Adam's day and the natural stability of Noah's age. Yet, by the time of Abraham, God had narrowed his covenant focus primarily to Israel as his favored people. And for this reason, the universal theological structures of earlier covenants had to be applied to Israel's patriarchs in ways that were appropriate for them as the chosen people. For instance, the command to multiply and to have dominion over the earth given to Adam was applied specifically to Israel's pursuit of multiplication as a race and possession of the Promised Land. The promise of natural stability was applied to Israel's patriarchs as they enjoyed the blessings of nature in the Promised Land.

모세의 율법 언약은 아담의 근본 언약, 노아의 안정 언약, 아브라함의 약속 언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모세는 더 이른 언약들의 신학 구조들을 그 자신의 시대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주의깊게 적용하였다. 더 이른 언약들의 원리들은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계시된 예배와 사회 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규례들에 비추어서 보아야만 했다. Moses' covenant of law reached back to Adam's foundation, Noah's stability and Abraham's promises, but Moses applied these earlier theological structures to the Israelites living in his day in very careful ways. The policies of earlier covenants had to be seen in the light of specific regulations for worship and social life revealed in God's law at Sinai.

다윗의 왕정 언약은 아담의 근본 언약, 노아의 안정 언약, 아브라함의 약속 언약, 모세의 율법 언약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윗 왕조가 세워지자마자 다윗 이전의 모든 신학 구조들은 다윗의 왕정과 수도 예루살렘과 그곳의 성전의 구심성에 비추어서 보아야만 했다. David's covenant of kingship built on Adam's foundation, Noah's natural stability, Abraham's promises and Moses' law. But once David's dynasty had been

established, all of these previous theological structures had to be seen in the light of the centrality of David's kingship, the city of Jerusalem and its temple.

우리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구약의 시대적 발전들이 있었던 동안 내내, 그것은 더 이른 언약들의 신학적 관점들이 더 늦은 시기들에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질문은 그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는 일은 시대들을 따라 구약을 통시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들의 지속적인 과업이다. We can sum up the matter this way. Throughout the epochal developments of the Old Testament, it was never a matter of *if* the theological perspectives of earlier covenants applied to later periods; rather, the important question was *how* they applied. Answering this question is the ongoing task of epochal diachronic approaches toward the Old Testament.

지금까지 구약의 신학이 한 언약 시대로부터 다른 한 언약의 시대까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세번째 중요한 주제 곧 성경신학자들이 구약 역사에서 특별한 주제들이 발전되었던 방법들을 어떻게 추적하는가 하는 주제를 다룰 것이다. Now that we have seen how Old Testament theology developed from one covenant age to another, we should turn to our third main topic: how biblical theologians have traced the ways specific topics developed in Old Testament history.

#### **IV. 주제적 발전들(TOPICAL DEVELOPMENTS)**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친구에게 지난 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편지를 쓰는 한 방법은 어떻게 많은 요소들이 함께 묶여 그 해를 구별된 시기들로 나누게 하는지를 서술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성경신학자들이 구약의 시대적 발전들을 연구하는 방법에 상응한다. 지난 해에 대하여 편지를 쓰는 두번째 방법은 당신의 가정, 당신의 교회, 당신의 영적 상태와 같은 당신의 삶의 특별한 영역들을 취하여 그것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한 해동안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서술하는 것이다. 이 편지의 각 문단은 "이것이 작년에 내 가정에 일어난 일이다." "이것이 작년에 내 교회에 일어난 일이다." "이것이 작년에 내 영적인 삶에 일어난 일이다." 등과 같이 시작될 것이다.

We've already seen that one strategy for writing a letter to a friend about events of the past year is to describe how many factors come together and divide the year into distinctive periods. This approach corresponds to the ways biblical theologians study epochal developments in the Old Testament. A second way to write about the same year would be to take particular areas of your life, like your family, your church, your spiritual condition and describe how each of these areas developed individually throughout the entire year. Each paragraph of this letter might begin something like: "This is what happened in my family last year." "This is what happened in my church last year." "This is what happened in my spiritual life last year."

이와 매우 흡사하게 구약 신학의 발전은 특별한 주제들의 관점에서 묘사될 수 있다. 이 접근법이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방향에서 살필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성경신학자들이 조직신학에서 유래한 전통적인 주제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필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성경신학의 특별한 주제를 살필 것이다. 그럼 먼저 조직신학이 성경신학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주제들을 어떻게 형성해 왔는지 살펴보자. In much the same way, the developments of Old Testament theology can be described in terms of particular topics. To get an idea of how this approach works, we'll look in two directions. First, we'll see how biblical theologians have treated traditional topics from systematic theology. And second, we'll look at the special issue of biblical typology. Let's begin with the ways systematic theology has formed topical concerns for biblical theologians.

## **A. 전통적인 주제들(Traditional Topics)**

전통적인 조직신학의 주제들은 상당히 고정된 세트의 관심사들로 발전되어 왔다. 대체적으로 조직신학자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에 관한 교리인 신론을 다룬다. 그 다음으로 그들은 인간에 관한 교리인 인간론을 다루며 특별히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구원에 관한 교리인 구원론이 이어진다. 그 다음으로 교회에 관한 교리인 교회론이 다루어진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일들에 관한 교리인 종말론이 다루어진다. The topics of traditional systematic theology have developed into a fairly

stable set of concerns. For the most part, systematicians first address theology proper, the doctrine of God. Then they turn to anthropology, the doctrine of humanity, and focus especially on humanity's need for salvation. Soteriology follows; the doctrine of salvation. Then, ecclesiology, the doctrine of the church receives attention, and finally, eschatology, the doctrine of last things.

성경신학자들조차도 이 기본적인 범주들을 따라 구약의 신학을 요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이런 일이 일어난 데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한편으로, 전통적인 조직신학은 매우 긴 역사를 갖고 있고 성경신학자들에게 매우 유용하였다. 사실을 말하면, 전통적인 조직신학의 결과들은 매우 긍정적이어서 매우 빈번하게 성경신학자들이 거기서 많은 도움을 얻어 왔다. 좋은 조직신학은 철저히 성경에 충실하기를 추구해 왔고 그 목표가 성취되는 한 조직신학은 성경신학에 제공할 것을 많이 갖게 된다. 조직신학이 성경신학으로부터 자극을 필요로 하는 만큼이나 성경신학은 조직신학의 풍부한 유산과 안정성을 필요로 한다. From time to time, even biblical theologians have summarized the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following these basic categories. And this has occurred for at least two reasons. On the one hand, traditional systematic theology has had a very long history and has been very useful for biblical theologians. In fact, the results of traditional systematic theology have been so positive that quite often, biblical theologians have found much help there. Good systematic theology has sought to be thoroughly biblical and in so far as that goal has been reached, systematics has much to offer biblical theology. As much as systematic theology needs stimulation from biblical theology, biblical theology needs the rich heritage and stability of systematics.

다른 한편으로, 매우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성경신학의 목표가 조직신학을 위한 주석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믿어 왔기 때문에 조직신학의 주제들은 통시적인 성경신학에서 빈번하게 채택되어 왔던 것이다. 이 강좌의 첫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서로 차이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찰스 하지, 벤자민 워필드, 게할더스 보스와 같은 매우 영향력 있는 학자들은 성경신학을 성경이 조직신학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데 사용되는

방편으로 보았다. 따라서 성경신학은 자주 그 자체로 목적으로 간주되지 않고 성경에 충실한 조직신학을 개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On the other hand, the topics of systematic theology have often been adopted in diachronic biblical theology because so many evangelicals have believed that the purpose of biblical theology is to provide exegetical information for systematics. In an earlier lesson, we saw that despite their differences, highly influential men such as Charles Hodge, Benjamin B. Warfield and Geerhardus Vos looked at biblical theology as the way Scripture is brought to bear on systematic theology. As a result, biblical theology is often thought of not as an end in itself, but as a means for developing a systematic theology that is true to Scripture.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성경신학자들이 구약에서 특별한 주제들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탐구할 때 조직신학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벗어나게 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성경신학자들이 그들 자신의 성경 연구로부터 새로운 통찰들을 소개할 때조차도 조직신학은 중요한 관점들에서 그들의 토론을 지도했다. 성경신학자들은 신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의 관점에서 구약을 탐구했다. 그러나 성경신학자들이 통시적 발전에 관심을 가질 때, 그들은 이 주제들에 관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질문 곧 이 교리가 구약에서 신학적 변화를 거치는 동안 어떻게 발전하거나 완성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For these and other reasons, it's nearly impossible for biblical theologians to free themselves entirely from systematic theology as they explore the development of particular topics in the Old Testament. And even when they have introduced new insights rising out of their study of Scripture, systematic theology has guided their discussions in important ways. Biblical theologians have explored the Old Testament in terms of theology proper, anthropology, soteriology, ecclesiology and eschatology. But when biblical theologians are concerned with diachronic developments, they ask this distinctive question of these issues: How did this doctrine develop or mature through the history of theological changes in the Old Testament?

예를 들어, 성경신학자가 신론을 탐구할 수 있다. 조직신학에서처럼 영원한 삼위일체 교리에 집중하는 대신, 성경신학자는 구약의 여러 시기 동안 독특한 하나님에 관한 행위 계시와 말씀 계시를 살피며 항상 더 늦은 계시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더 늦은 계시를 가지고 더 이른 계시를 읽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성경신학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질 것이다. “아담 시대에 하나님은 자신에 관하여 무엇을 계시하셨는가?”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자신에 관하여 무엇을 계시하셨는가?” “모세의 신론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며 자신에 관하여 더 많은 것을 계시하셨다. 이런 이유로 신론은 구약의 역사에서 믿을 만한 선들을 따라 발전했다. For instance, a biblical theologian might explore theology proper. But rather than concentrating on the doctrine of the eternal Trinity as in traditional systematics, a biblical theologian would look at the distinctive act and word revelations about God during different periods of the Old Testament, always being careful not to violate later revelation but also careful not to read later revelation into earlier periods. A biblical theologian might ask, “What did God reveal about himself in the time of Adam?” “What did he reveal about himself in the time of Noah?” “What was Moses’ doctrine of God?” and so on. As God acted and spoke in history, he revealed more of himself. For this reason, the doctrine of God developed along certain lines in Old Testament history.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성경신학자들은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의 관점들이 구약을 통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추적해 왔다. 구약은 인간의 상황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발전시켰는가? 구약은 구원의 방법을 단번에 한 단계로 어떻게 제시했는가? 구약은 여러 시기들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주제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어떻게 구약은 종말에 관한 관점을 점진적으로 드러냈는가? In a similar way, biblical theologians have traced how aspects of anthropology, soteriology, ecclesiology and eschatology developed through the Old Testament as well. How did the Old Testament develop an outlook on the condition of humanity? How did it display the way of salvation one step at a time? How did the Old Testament deal with the

theme of the people of God in different periods? How did it progressively unfold an outlook on the last days?

성경신학자들은 이러한 전통적인 주제들 중 하나 하나에 집중하며 전통적인 조직신학에서 간과되어 온 새로운 통찰들을 발견하곤 했다. 또한 그들은 조직신학이 성경신학에 의해 교정되어야 하는 관점들을 발견하곤 했다. As biblical theologians have focused on each of these traditional topics, they have often discovered new insights that have been overlooked in traditional systematics. At times, they have even discovered ways that systematic theology should be corrected by biblical theology.

지금까지 성경신학에서 다루는 주제적 발전들이 어떻게 조직신학과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구약의 주제적 발전들에 대한 두번째 관점을 다룰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흔히 "성경의 모형론"이라고 불리는 한 특별한 통시적 주제이다. Now that we have an understanding of how topical developments in biblical theology relate to systematic theology, we should turn to a second aspect of topical developments in the Old Testament. We have in mind here a special diachronic issue that is frequently called "biblical typology."

## **B. 모형론(Typology)**

기독교 목회자들과 교사들이 이것이나 저것이 어떤 다른 것의 모형이 된다고 말할 때, 대개 그들은 구약의 관점들을 그리스도의 모형들이나 기독교 신앙의 다른 어떤 관점으로 지적한다. 우리는 자주 "어떻게 그들이 그런 모형론을 제안하였는가?" 혹은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정당화했는가?"라고 우리 자신에게 묻는다. 그 문제에 대하여 심지어 우리는 "아무튼, 엄밀하게 모형이란 것은 무엇인가?"라고 묻기도 한다. 성경의 모형론에 대하여 매우 많은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질문들을 던지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When Christian pastors and teachers talk about this or that being a type of something else, usually they refer to aspects of the Old Testament as types of Christ or some other aspect of the Christian faith. And we often wonder to ourselves, "How did they come up with that typology?" "How did they justify it?" And for that matter, we might even ask, "What exactly is a



type, anyway?" There are so many misunderstandings of biblical typology it is no wonder that we raise these kinds of questions.

구약의 성경신학에서의 모형론을 탐구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다른 주제들을 다룰 것이다. 첫째로, 성경의 모형론이란 용어가 의미하는 것을 정의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모형론의 다섯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살필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모형들에 대한 정체 확인의 과정을 탐구할 것이다. 그럼 먼저 성경의 모형론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To explore typology in Old Testament biblical theology, we'll touch on three different issues. First, we'll define what we mean by the term biblical typology; second, we'll look into five important features of typology; and third, we'll explore the process of identifying typologies. Let's look first at a definition of biblical typology.

### 1. 정의(Definition)

“모형론”이란 용어는 과학과 문학 연구와 같은 다른 과목들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 강의에서 우리의 관심은 성경신학에 있어서 성경의 모형론이란 개념에 있다. 매우 넓은 의미에서 성경신학은 모형론이란 용어를 구약신학에서 다루는 주제들의 모든 통시적 발전에 적용한다. 한 주제의 역사적 단계들을 추적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에서 모형론을 이룬다. 때때로 성경신학자들이 신론의 모형론이나 예배의 모형론에 관하여 말할 때 그들은 그것들을 이러한 주제들이 성경에 발전되었던 방식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현대 성경신학자들은 대체로 모형론이란 용어를 훨씬 더 좁은 의미로 사용한다. 이러한 좁은 의미에서 말하면, 모형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The term “typology” is used in a variety of ways in other disciplines such as science and literary studies. Our concern in this lesson, however, is with the idea of typology in biblical theology. In a very broad sense, biblical theology applies the term typology to any diachronic development of topics in Old Testament theology. Every trace of the historical stages of a topic forms typology in this general sense of the word. On occasions, biblical theologians will speak of the typology of the doctrine of God, or the typology of worship, and simply mean that these are the ways these themes developed in the Bible. But for the most part, modern

biblical theologians have used the term typology much more narrowly. We can summarize this special meaning in this way.

성경의 모형론은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인물들, 제도들, 사건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신학 구조들 사이의 통시적 발전들에 대한 연구이다. Biblical typology is the study of diachronic developments between the theological structures closely associated with significant persons, institutions and events in Scripture.

간단히 말하면, 모형론은 모형들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모형"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15 번 사용된 [튀포스]란 헬라어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세 개의 중요한 구절에서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의 특별한 신학 구조들을 신약 신앙에서의 다른 신학 구조들의 모형으로 말했다. In simple language, we might say that typology is the study of types. The word "type" derives from the Greek word *typos*, which is used fifteen times in the New Testament. In three important passages New Testament writers spoke of particular theological structures in the Old Testament as "types" of other theological structures in New Testament faith.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롬 5:14 에서 아담에 관하여 말한 것을 들어보라. For example, listen to what the apostle Paul said about Adam in Romans 5:14.

**(롬 5:14 개역개정)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Nevertheless, death reigned from the time of Adam to the time of Moses, even over those who did not sin by breaking a command, as Adam did, who was a pattern of the one to come (Romans 5:14).**

여기서 바울이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었다고 선언하는 것을 주목하라. 여기서 “모형”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튀포스]이다. 우리는 보다 더 넓은 문맥을 통하여 여기 “오실 자”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구절에서 말한 것은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는 것이다. Notice here that Paul declared Adam was “a pattern of the one to come.” The Greek word translated “pattern” here is *tupos*. From the larger context we know that “the one to come” is Christ. So, in this case, Paul observed that Adam was a type of Christ.

벧전 3:20-21 에서 구약의 모형에 대한 신약의 짝은 “대형”으로 불리고 있다. 거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In 1 Peter 3:20-21 the New Testament counterpart to an Old Testament type is designated the “antitype.” There we read these words:

**(벧전 3:20-21) 노아의 시대에 . . . 여덟 사람이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물)에 상응하는 세례가 이제 너희를 구원한다.  
In the days of Noah ... eight persons, were brought safely through the water. And corresponding to that, baptism now saves you (1 Peter 3:20-21, NASB).**

이 구절에서 “이에 상응하는”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안티튀포스] 곧 “대형(對型)”이다. 그러므로 이 예에서 기독교 세례는 노아의 홍수에 대한 신약의 대형으로 제시되어 있다. In this passage the Greek term translated “corresponding to that” is *antítupos* or “antitype.” So, in this example, Christian baptism is presented as a New Testament counterpart to Noah’s flood.

골 2:17 에서 바울은 한 번 용어를 의미있게 변경하여 구약의 의식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In Colossians 2 verse 17 the apostle Paul once spoke of Old Testament ceremonial law with a significant variation in terminology.

(골 2:17) 이것들은 장차 올 일들의 그림자이나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These are a shadow of the things that were to come; the reality, however, is found in Christ (Colossians 2:17).**

여기서 바울은 모세의 의식법을 “그림자”(헬라어 [스키아])라고 말하고, “장차 올 일들”을 “그리스도의 것인 실체”로 말했다. 이와 비슷하게 히브리서 저자 또한 모형을 그림자로 말하고 대형을 실체로 말했다. Here Paul spoke of Moses' ceremonial law as “a shadow” (*skiá* in Greek) and “the things to come,” as “the reality ... found in Christ.” In a similar way, the writer of Hebrews also spoke of types as shadows and antitypes as realities.

그러나 매우 빈번하게 신약의 저자들은 성경의 모형들을 설명할 때 어떤 특별한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순하게 구약과 신약의 특별한 요소들을 서로 연결하거나 결합시켰다. 예를 들어, 요 3:14-15 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모세의 뱀뱀과 예수님 자신을 모형적으로 연결하여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라. Most frequently, however, New Testament writers did not use any special terminology when they noted biblical typologies. They simply linked or associated particular Old and New Testament elements with each other. For instance, listen to the way Jesus spoke of a typological connection between Moses' bronze serpent and himself in John 3:14-15.

**(요 3:14-15) 모세가 광야에서 뱀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Just as Moses lifted up the snake in the desert, so the Son of Man must be lifted up,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may have eternal life (John 3:14-15).**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시며 뱀뱀과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비교하셨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뱀뱀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모형이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뱀뱀의 대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모형론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성경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모형론의 구체적인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자. In this passage, Jesus compared the bronze serpent with his crucifixion without any special terminology. But we can still say that the serpent was a type of the crucifixion and that the crucifixion was the antitype of the serpent.

With this basic idea of typology in mind, we should turn to a number of specific features of typology that biblical theologians usually recognize.

## 2. 특징들(Features)

우리의 목적상 우리는 다섯 가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모형론이 비유법으로 사용되는지 살필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성경의 모형론의 다양한 요소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모형론이 신학 구조들의 비교라는 것을 설명할 것이다. 넷째로, 우리는 어떻게 모형론이 신학적 발전을 드러내는지 살필 것이다. 다섯째로, 우리는 성경의 많은 모형들의 연속적 성격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그럼 먼저 어떻게 모형론이 비유법으로 사용되는지 살펴보자. For our purposes, we'll give attention to five issues. First, we'll see how typology functions as a figure of speech. Second, we'll focus on the variety of elements in biblical typologies. Third, we'll note that typologies are comparisons of theological structures. Fourth, we'll see how typologies represent theological developments. And fifth, we'll draw attention to the serial character of many typologies in the Bible. Consider first how typologies function as figures of speech.

언어학적 수준에서 성경의 모형론의 표현을 특별한 비유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비교의 표현법으로 보는 것은 도움이 된다. 비교의 표현법은 어떤 사물을 다른 사물과 비교하며 간접적으로 서술하는 것으로 은유, 직유, 유추 등과 비슷하다. 성경의 모형론을 비교의 표현법으로 봄으로써 우리는 그것의 기본적인 작법에 대한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 On a linguistic level, it helps to view the expression of typologies in Scripture as a special figure of speech, or to be more specific, as a figure of comparison. Figures of comparison are indirect ways of describing things by comparing them with something else, just like we do with metaphors or similes, analogies and the

like. We can understand a lot about the basic mechanics of typology in the Bible by viewing it as a figure of comparison.

모든 비교의 표현법은 세 가지 주된 요소를 가진다. 첫째 요소는 고려 중인 주된 대상과 비교되고 있는 대상으로서의 이미지이고, 둘째 요소는 관심을 받고 있는 주된 대상으로서의 주제이고, 셋째 요소는 이미지와 주제 사이의 비교의 요점이다. 예를 들어, "저 마천루는 산과 같이 높다."라는 간단한 직유를 생각해 보라. 이 문에서 이미지는 "산"이다. 그것은 주된 관심사와 비교되고 있는 대상이다. 주된 관심사 곧 주제는 "저 마천루" 곧 고려 중인 건물이다. 그리고 명시적인 비교의 요점은 둘 모두 "크다"는 것이다. Every figure of comparison operates with three main elements: the image which is the item being compared with the main item in view; the topic which is the main item of concern; and points of comparison between the two. For instance, think about this simple simile, "That skyscraper is tall like a mountain." In this sentence, the image is "a mountain." It is the item being compared to the main concern. The main concern or topic is "that skyscraper," the building in view. And the explicit point of comparison is that both are "tall."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비교의 표현법을 사용할 때 이 세 가지 요소를 항상 명시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교의 표현법이 성공적으로 의사 전달을 하려면 적어도 이미지, 주제, 하나 이상의 비교의 요점이 암시되어 있어야 한다. 성경의 모형론에서 있어서도 이 세 가지 요소들은 명시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나타나 있다. 첫째로, "모형"은 관심의 주된 대상과 비교되는 대상인 이미지 역할을 한다. 둘째로, "대형"은 모형이 비교되고 있는 주된 대상인 주제이다. 셋째로, 모형과 대형은 하나 이상의 비교의 요점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Now when we actually use figures of comparison we do not always state all three of these elements explicitly. But the image, topic and one or more points of comparison are at least implied for any figure of comparison to communicate successfully. These three elements also appear either explicitly or implicitly in biblical typology. First, a "type" functions as an image, an item that is being compared with the

main item of concern. Second, the "antitype" is the topic, the item to which the type is being compared. And third, the type and antitype are linked to each other by one or more points of comparison.

예를 들어, 당신은 사도 바울이 롬 5:14 에서 아담이 "오실 자 곧 그리스도의 표상 혹은 모형"이었다고 선언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 경우에 아담은 그리스도와 비교되고 있는 모형으로서 이미지이고, 그리스도는 대형으로서 주제이다.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의 비교의 요점들은 로마서 5 장이란 더 큰 문맥에 설명되어 있다. 아담의 행위와 그리스도의 행위, 둘 모두 그들과 동일시되는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고 밀접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아담과 동일시되는 사람들은 죽은 반면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다. For instance, you'll recall that in Romans 5:14 the apostle Paul declared that Adam was "a pattern, or type, of the one to come, that is, Christ." So, in this case, Adam is the image or type who is being compared with Christ, and Christ is the topic or antitype. The points of comparison between Adam and Christ are explained in the larger context of Romans chapter 5. Adam is a type of Christ because both the actions of Adam and the actions of Christ had widespread and related effects on people who were identified with them. On the one hand, those identified with Adam died. And on the other hand, those identified with Christ received eternal life.

성경의 모형론의 두번째 특징은 비교되는 요소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다. 비교는 다양한 종류의 사물들 사이에 이루어진다. 모형과 대형으로 사용되는 요소들을 분류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세 개의 기본적인 그룹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모형과 대형은 중요한 인물이거나 중요한 제도이거나 중요한 사건일 수 있다. 인물이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말하는데 중요한 사람들, 영적 존재들, 하나님, 혹은 드물지만 의인화된 피조물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제도란 지속적인 역사적 실체를 말하는데 중요한 부동산이나 지속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 의식, 조직체, 중요한 건축물 등이 여기에 속한다. 사건이란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 곧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말한다. 모형과 대형은 이 세 가지 요소들의 모든

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A second feature of biblical typology is that compared elements are quite varied. Comparisons are made between different kinds of things. There are many ways of classifying the elements that function as types and antitypes, but it's helpful to think of them in three basic groups. Types and antitypes may be significant persons, institutions, or events. By persons, we mean characters that appear in the Scriptures, like significant human characters, spiritual creatures, God, and on rare occasions other aspects of creation that are personified. By institutions, we mean enduring historical realities like significant real estate or locations of lasting significance, rituals, organizations, important buildings and the like. And by events, we simply mean significant historical occurrences, things that happened. Types and antitypes can consist of every combination of these three elements.

우리가 이미 살펴본 신약의 모형론의 예들은 이러한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 롬 5:14 에서 바울이 사용한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의 모형론은 한 중요한 인물과 다른 중요한 인물을 비교했다. 벵전 3:21 에서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독교의 세례 제도와 비교했다. 요 3:14 에서 예수님은 모세가 뿔뿔을 든 사건을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사건과 비교하셨다. 다른 조합들이 성경의 다른 곳들에 나온다. 경우가 무엇이든지 모형론은 중요한 인물들, 제도들, 사건들을 비교한다. The examples of New Testament typology we have noted already reflect some of this variety. Paul's typology between Adam and Christ in Romans 5:14 compared one significant person with another significant person. In 1 Peter 3:21, Peter compared the event of Noah's flood with the institution of Christian baptism. In John 3:14, Jesus compared the event of Moses lifting the bronze serpent with the event of his own crucifixion. Other combinations occur elsewhere in Scripture. Whatever the case, typologies compare significant persons, institutions and events.

셋째로, 성경의 모형론은 항상 그것들의 요소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학 구조들을 비교한다. 불행하게도 좋은 의도를 가진 복음주의적 성경신학자들이 자주 모형론에 지나치게 빠져 성경에 나오는 두 대상 사이에 어떤 유사성이 있는 것을 보기만 하면 모형과 대형으로 여기는 일이 있어



왔다. 그러나 그들의 비교는 중대한 신학적인 연관보다는 오히려 우연히 일치하는 특징에 불과한 경우가 빈번했다. In the third place, typologies in the Bible always compare the theological structures that a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ir elements. Unfortunately, well-intending evangelical biblical theologians often become so intrigued with typology that they find types and antitypes nearly every time they see any similarity between two items in Scripture. But their comparisons frequently involve only coincidental features, rather than substantial theological connections.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두 손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그보다 더 늦은 시기의 두 손을 가진 성경적 인물들의 모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사람들이 구약에서 한 번 이상 예복을 입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서로의 모형과 대형이었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는다. 이러한 종류의 비교는 역사적인 우연의 일치를 다룬 것에 불과하다. For example, Abraham had two hands, but there is no good reason for thinking that Abraham was a type of later biblical characters who also had two hands. The fact that people wore robes at more than one time in the Old Testament does not indicate that they were types and antitypes of each other. These sorts of comparisons deal with little more than historical coincidences.

근거가 충분한 모형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비교에 의해 산만해지는 대신 그것들의 요소들과 연관된 중요한 신학 구조들에 대한 비교로 이루어져 있다. 모형론의 요소인 인물, 제도, 사건은 그것들의 모형론에 있어서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제유로서 밀접하게 연관된 더 큰 신학적 개념들을 나타내는 부분들 같은 역할을 한다. 모형론의 요소로서 인물이나 제도나 사건을 언급할 때, 성경 저자들은 그 요소들이 나타내는 더 큰 신학 구조를 염두에 두었다. Instead of being distracted by such insignificant comparisons, well-founded typologies consist of comparisons of significant theological structures associated with their elements. The elements of typologies, persons, institutions and events do not stand alone in their typologies. They serve as synecdoches, parts that stand for larger, closely associated theological ideas. When biblical writers mentioned particular

persons, institutions, or events as elements of typologies, they had in mind the larger theological structures that those elements represented.

예를 들어, 바울이 롬 5:14 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아담을 든 예를 다시 생각해 보라. 바울은 두 사람이 머리카락을 갖고 있었던 사실을 비교하지 않았다. 그는 두 사람이 두 눈과 두 귀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심을 두지도 않았다. 그 대신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신학적 중요성을 비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형론을 지적했다. 바울의 비교는 두 사람이 그들과 동일시되는 사람들의 상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관찰에 근거하였다. For example, consider again Paul's example of Adam as a type of Christ in Romans 5:14. Paul did not compare the fact that both men had hair. He did not draw attention to the fact that both had two eyes and two ears. Instead, Paul noted this typology because he was comparing the theological significances of Adam and Christ. Paul's comparison was based on the observation that both men had massive impacts on the status of the people identified with them.

베드로가 벤훈전 3:20-21 에서 노아의 홍수와 기독교의 세례 사이에 모형론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다. 베드로 서신의 더 큰 문맥은 베드로의 관심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 복받은 세상으로 노아가 나아가게 된 방편으로서 홍수의 신학적 중요성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게 밝혀 준다. 기독교의 세례가 이와 비슷한 믿음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것은 기독교 세례가 심판 받을 운명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노아 시대의 물과 세례의 물을 비교한 것은 바로 이러한 수준에서였다. The same may be said of Peter's typology between Noah's flood and Christian baptism in 1 Peter 3:20-21. The larger context of Peter's epistle makes it clear that he was concerned with the theological significance of the flood as the way Noah passed from a world of divine judgment to a new world blessed by God. And of course, Christian baptism is associated with similar beliefs because it symbolizes our passing from a world destined for judgment to the new creation in Christ. It was on

this level that Peter compared the waters of Noah's day with the waters of baptism.

성경의 모형론의 네번째 특징은 그것이 항상 통시적 발전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경이 모형과 대형의 정체를 밝힐 때 그것들은 항상 역사상 다른 시대에 속하기 때문에 그 시대들 사이의 통시적인 신학 발전을 반영한다. 이런 이유로 모든 비교의 표현법들처럼 모형론도 그 요소들 사이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포함하기 마련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비교되는 요소들의 유사점을 볼 수 있다. 어떤 인물, 제도, 사건이 더 늦은 인물, 제도, 사건의 모형이 되는 것은 그들의 신학적 중요성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비교되는 요소들의 상이점을 볼 수 있다. 그것들은 결코 정확하게 동일한 것이 아니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것들의 신학적 중요성에 있어서 발전을 일으킨 새로운 계시가 모형과 대형 사이에 주어졌다.

A fourth characteristic of typologies in Scripture is that they always reflect diachronic developments. When the Scriptures identify types and antitypes they always belong to different times in history and so, they reflect diachronic theological developments between those times. For this reason, as with all figures of comparison, typologies will involve bot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ir elements. On the one side, we're able to see similarities. Certain persons, institutions and events are types of later persons, institutions and events because their theological significances were similar. But on the other side, these comparable elements were also dissimilar; they were never precisely the same. With the passage of time, new revelations took place between types and antitypes that caused developments in their theological significances.

모형이 아담이고 대형이 그리스도인 롬 5:14 에 사용된 바울의 모형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담과 그리스도가 그들과 동일시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아담은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와 비슷하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통시적 발전으로 인해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에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강조한 것 또한 주목해야 한다. 롬 5:15 에서 바울이 말한 것을 들어 보라. Think once again about Paul's typology in Romans

5:14 where the type is Adam and the antitype is Christ. Now, as we have seen, Adam is theologically similar to Christ in that both had widespread effects on the way God viewed all who are identified with them. But we should also notice that Paul stressed a very important difference between them due to diachronic developments. Listen to what he said in Romans 5:15:

**(롬 5:15 개역개정)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But the gift is not like the trespass. For if the many died by the trespass of the one man, how much more did God's grace and the gift that came by the grace of the one man, Jesus Christ, overflow to the many! (Romans 5:15).**

여기서 바울이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의 유사점들만 지적하고 있지 않았음을 주목하라. 그는 그 둘 사이에 중대한 차이점이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아담은 성경 역사의 최초의 시대에 살았고 그의 불순종의 행위로 인해 인간의 역사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들이 완성될 최종의 시대에 사셨고 그분의 순종으로 인해 영생을 가져 오셨다. 바울의 모형론에서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의 차이점들은 그들의 유사점들처럼 매우 중요하다. 동일한 것이 모든 모형론에 적용된다. Notice here that Paul did not simply point to the similarities between Adam and Christ. He noted a crucial difference between them. Adam lived in the earliest epoch of biblical history and his act of disobedience introduced sin and death into human history. Christ, however, lived in the last stages of biblical history when God's purposes of redemption were to be accomplished. As a result, Christ's obedience brought eternal life. The differences between Adam and Christ were just as vital to Paul's typology as their similarities, and the same is true for all typologies.

모형론의 다섯번째 특징은 그것들이 자주 연속하여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것들은 단 하나의 모형과 대형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세 개 이상의 요소로 이루어진 시리즈로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구약에 나오는 예배에 대한 연속적인 모형론을 생각해 보라. 일반적으로 우리는 모든 단계에서 인간이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는 항상 천사들이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를 본삼고 반영하였다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지상에서 예배의 실행은 역사적으로 발전되었고 이러한 역사적 발전은 연속적인 모형론을 만들었다. 처음으로 예배는 아담과 하와의 때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분의 거룩한 동산에 두셨을 때 시작되었다. 창 2:15 의 말씀을 들어 보라. Another feature of typologies is that they often appear in series. Rather than consisting of just one type and antitype, they can involve a series of three or more elements. For example, consider the serial typology of worship in the Old Testament. In general terms, we should say that at every stage, worship by human beings on earth always imitated and reflected the angelic worship of God in heaven. But the practice of worship on earth developed historically and these historical developments created serial typologies. In the first place, worship began in the days of Adam and Eve when God set them within his holy garden. Listen to the record of Genesis 2:15:

**(창 2:15) 여호와께서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곳에서 섬기며[아바드] 그 곳을 지키게[샤마르] 하셨다.**

**The Lord God took the man and put him in the Garden of Eden to work it and take care of it (Genesis 2:15).**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는 일을 묘사하는데 사용된 용어가 특이하다. 그것은 모세 오경의 다른 곳 곧 모세가 성막에서 레위인들이 하는 일을 묘사하는 민 3:7-8 그리고 8:26 과 같은 구절에 나온다. 모세가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를 묘사하는데 성막 예배의 용어를 사용한 것은 모세가 에덴 동산과 성막 사이에 모형론적 연관이 있음을 본 것을 암시한다. 이 모형론은 성막 자체의 구조와 장식품들이 낙원인 에덴 동산을 반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의해 입증된다. The language used to describe Adam and Eve's work in the garden is unusual. It appears elsewhere in the Pentateuch in places like Numbers 3:7-8 and 8:26, where Moses described Levitical service in the tabernacle. Moses' use of the language of tabernacle worship to describe Adam and Eve in the garden indicates that Moses saw a typological connection between the Garden of Eden and the tabernacle. This typology is confirmed by the fact that the architecture and decorations of the tabernacle itself reflected the paradise of the Garden of Eden.

모세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을 묘사한 방식은 예배의 신학 구조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인간들이 그 동산에서 추방당했을 때, 예배에 있어서 통시적 발전이 일어났다. 아벨, 셋, 노아, 아브라함의 예들이 암시하듯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 장소에서 예배를 위한 제단들을 쌓게 하심으로써 에덴 동산 밖에서도 그분을 예배하는 일을 계속하게 하셨다. The way Moses described the activities of Adam and Eve in the Garden of Eden indicates that the theological structure of worship began with the Garden of Eden. When humanity was cast out of the garden, a diachronic development in worship took place. As the examples of Abel, Seth, Noah and Abraham indicate, God called for his people to continue worshipping him outside of the garden by building altars for worship in different places.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예배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통시적 발전이 일어났다. 이스라엘의 예배는 왕이신 하나님의 지상 위의 발등상인 언약궤를 담고 있는 성막에서 드리도록 중앙화되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예배에 있어서 또 하나의 통시적 발전이 일어났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있는 영구적인 건물인 성전으로 언약궤를 옮기게 하시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 Later when God called Israel out of Egypt and made a covenant with them at Sinai, another significant diachronic development took place in worship. Israel's worship was centralized at the tabernacle around the ark of the covenant, God's royal

footstool on earth. Then, once Israel had settled in the land, another diachronic development in worship took place. God called for his people to transfer the ark of the covenant and to worship at the permanent structure of the temple in Jerusalem.

마지막으로,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을 파괴했을 때, 선지자 에스겔은 예배에 관한 새로운 계시를 선언했다. 그는 포로기 이후에 다윗 왕정과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훨씬 더 큰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스룹바벨 시대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포로기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위한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다. Finally, after the Babylonians destroyed Solomon's temple in Jerusalem, the prophet Ezekiel announced a new revelation regarding worship. He predicted that after the exile an even greater temple would be built when David's kingship and Jerusalem were restored. Not surprisingly, during the days of Zerubbabel, the prophets Haggai and Zechariah insisted that those who had returned to the land of promise after exile were to build a new temple for the worship of God.

이렇게 우리는 예배의 다양한 신학 구조들 사이에 존재하는 연속적인 모형론을 볼 수 있다. 예배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고, 모세 시대 이전에 초기 제단들로, 모세의 성막으로, 솔로몬의 성전으로, 스룹바벨의 성전으로 확대되었다. 구약에서 여러 차례,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중요한 인물들, 제도들, 사건들과 연관된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들을 언급하셨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그분의 반복적인 언급은 자주 연속적인 모형론을 형성했다. So, then we see a serial typology among the various theological structures of worship beginning with the Garden of Eden, and extending to the early altars before Moses' day, to the tabernacle of Moses, to Solomon's temple, and to the temple of Zerubbabel. Many times in the Old Testament, God repeatedly addressed important theological issues associated with significant persons, institutions and events. And his repeated attention to these matters often formed serial typologies.

지금까지 성경의 모형론의 다섯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세번째 주제 곧 구약에서 모형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법을 다룰 것이다. 구약의 인물들, 제도들, 사건들과 연관된 구체적인 신학 구조들을 탐구할 때 우리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Now that we have seen five important features of typologies in Scripture, we should turn to a third issue: how to identify typologies in the Old Testament. What procedures should we follow as we explore the developments of specific theological structures associated with Old Testament persons, institutions and events?

### 3. 정체성 확인(Identification)

우리는 모형론에 대한 두 가지 주요 관점들을 취함으로써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것이다. 첫째는 예표로 보여지는 모형론이고, 둘째는 반성으로 보여지는 모형론이다. 먼저 예표로서 모형론을 생각해 보자. 우리가 예표로서 모형론을 생각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은 모형들이 구약 역사에서 나타났을 때 그것들은 미래의 대형들을 가리키도록 의도되었다는 믿음이다. 교회의 역사 동안 내내 대다수의 해석자들이 성경의 모형론을 이런 식으로 다루어 왔다. 이 견해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중요한 인물들, 제도들, 사건들을 역사 가운데 두시며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래에 올 것을 암시하셨다는 것이다. 이 전통적인 관점은 복음주의적 성경신학의 초창기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독교적 모형론에 대한 접근 방법들을 특징지었다. We will answer this question by taking up two major outlooks on typologies. First, typology viewed as anticipation. And second, typology viewed as reflection. Let's think first of typology as anticipation. When we think of typology as anticipation, we have in mind the belief that when types appeared in Old Testament history, they were designed to point toward future antitypes.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church, the vast majority of interpreters have treated scriptural typologies in this way. In this view, God sovereignly placed significant persons, institutions and events in history to indicate to the people living in those days what was coming in the future. This traditional outlook has characterized most Christian approaches toward typology including the early decades of evangelical biblical theology.



최근에 많은 성경신학자들이 이 전통적인 예표적 견해를 버리고 자주 “상호 본문성(intertextuality)”이라고 불리는 접근 방법을 택했다. 모형들을 지평선에 나타날 것을 암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한 역사적 실체들로 다루는 대신, 상호 본문성은 모형론을 문예적 현상 곧 한 성경 본문이 다른 본문을 다루는 방식으로 다룬다. 성경의 모형론은 더 늦은 성경 본문들이 특별한 신학적 목적들을 위해 더 이른 성경 본문들을 다룬 방식으로 축소되었다. Now in recent days, many biblical theologians have dismissed this traditional anticipatory view in favor of an approach that is often called “intertextuality.” Intertextuality treats typologies simply as literary phenomena, the ways one biblical text treats another, rather than treating typologies as historical realities arranged by God to indicate what was on the horizon. Biblical typologies are reduced to the ways later biblical texts handled earlier biblical passages for particular theological ends.

이 최근의 경향들과 대조적으로, 신약 저자들은 모형론을 “상호 실체성(interactualities)”으로 묘사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모형들은 실제로 그들의 대형들인 미래의 역사적 실체들을 예표하였던 역사적 실체였다. 당신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지만 롬 5:14 에서 바울은 아담을 “오실 자의 표상(모형)”이라고 불렀다. 바울은 단순히 창세기 본문에 관하여가 아니라 역사적 아담에 관하여 역사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썼다. 이와 비슷하게 바울은 골 2:17 에서 구약의 예식법의 모형을 “장차 올 일들의 그림자”라고 인정했다. 그의 그림자라는 은유가 제안하는 것은 구약의 예식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체들의 그림자들이 투영된 과거의 역사적 실체들이므로 결국 그리스도안에 있는 실체들로부터 유래되었다는 것이다. In contrast with these recent tendencies, New Testament authors described typology as “interactualities.” In other words, types were historical realities that actually anticipated future historical realities as their antitypes. As you will recall, in Romans 5:14, Paul called Adam “a pattern of one to come.” Paul wrote about the historical Adam, not merely the text of Genesis, as foreshadowing the historical Christ. In a similar way, in Colossians 2:17, Paul identified the type of Old Testament ceremonial law as “a shadow of the

things that were to come.” His metaphor of shadow suggests that the ceremonies of the Old Testament resulted from realities in Christ casting their shadows into the historical realities of the past. Following the New Testament witness, we should affirm that in his providence God arranged history so that some earlier persons, institutions and events anticipated or foreshadowed later persons, institutions and events. 신약의 증언을 따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더 이른 인물들, 제도들, 사건들이 더 늦은 인물들, 제도들, 사건들을 예표하거나 예시하도록 역사를 조정하셨다고 단언해야 한다.

모형들에 대한 예표적 견해를 단언하는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한 가지 질문은 이것이니 곧 구약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모형들이 가리키던 미래를 이해하고 있었느냐는 것이다. 구약 시대의 인물들과 저자들은 그들 당대의 모형들을 보면서 지평선에 어떤 대형들이 있는지 알 수 있었는가? One question that often arises from affirming an anticipatory view of types is this: Did people living in the Old Testament understand the future to which types pointed? Were characters and writers of Old Testament times able to know what antitypes were on the horizon by looking at the types of their day?

이에 대하여 우리가 “예”라고 대답할 만한 이유들이 충분하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종종 사람들에게 구체적이고 특별한 계시들을 주시며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예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구약의 선지자들과 다른 지도적 인물들은 어떻게 모형들이 미래의 대형들을 예표하고 있었는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다. “There are senses in which we should answer “yes.” In the first place, we cannot rule out that from time to time God gave specific, special revelations to people that enabled them to have such foreknowledge. For instance, perhaps prophets and other leading figures in the Old Testament were able to see, to some extent, how types anticipated future antitypes.

둘째로, 때때로 모형들의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더 일상적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미래의 대형들을 기대할 수 있었다. 아주 빈번하게 구약의

모형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들의 미래 발전을 계시하셨던 신학 구조들과 연관되어 있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신학 구조들이 더 큰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될 방식들을 알리셨다. 이른 모형들이 미리 보여진 미래의 실체들과 연관이 있는 한, 그것들은 어떤 종류의 미래의 대형들이 기대될 수 있는지 암시하고 있었다. In the second place, at times people living in the days of types could anticipate future antitypes by applying more ordinary means. Quite often, types in the Old Testament were associated with theological structures whose future developments God had already revealed. That is to say, God had indicated the ways certain theological structures would move forward toward a greater end. Insofar as early types were associated with these previewed future realities, they indicated what kinds of future antitypes could be expected.

예를 들어, 이 강좌를 통해 줄곧 말해 온 대로, 창 1:28 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번성하고 땅을 다스림으로써 에덴 동산이란 낙원을 온 땅으로 확장시키도록 명령하셨을 때 땅의 궁극적인 운명을 계시하셨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이 온 세상을 에덴과 같은 경이롭고 거룩한 곳으로 바꾸도록 정하셨음을 계시하셨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자체의 경이로움이 모형 곧 어느 날 온 세상에 적용될 것의 예표였다는 것을 이해했다. For example, as we have said throughout this series, in Genesis 1:28 God revealed the ultimate destiny of Earth to Adam and Eve when he commanded them to extend the paradise of the Garden of Eden to the entire earth by multiplying and having dominion over the earth. From the very beginning, God revealed that he had ordained his image to turn all of the world into a wondrous, holy place like Eden. Adam and Eve understood that the wonder of the Garden of Eden itself was a type, an anticipation of what would one day be true of the entire world.

창 15:18 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강들과 연결시키는 방식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받을 약속의 땅의 강들의 경계를 알려 주셨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약속된 땅을 지나 다니면서 그의 땅이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고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들을 온 땅으로 확장시킬 출발점인 것을 이해했다.

이것이 바울이 롬 4:13 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지은 이유이다. In Genesis 15:18, God identified the river boundaries of Abraham's Promised Land in ways that connected it with the rivers in the land of Eden. So, as Abraham walked through his promised land, he understood that his land was not an end in itself, but the starting point from which his descendants would spread the blessings of God throughout the earth. This is why Paul concluded this in Romans 4:13:

**(롬 4:13)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그들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다. Abraham and his offspring received the promise that he would be heir of the world (Romans 4:13).**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들을 땅 끝까지 확장시키기 위한 출발점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과 매우 흡사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도 역시 어느 날 온 세상이 그렇게 될 것을 예표하는 모형이었다. The land promised to Abraham was the beginning point for Israel's expansion of God's blessings to the ends of the earth. In this sense, much like the Garden of Eden, the Promised Land given to Abraham's descendants was also a type that anticipated what the entire world would be like one day.

이 외에도 창 15:18 에 언급된 약속의 땅의 경계들은 여러 세대 후에 다윗 왕국이 다다른 경계였다. 다윗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의 전체 범위를 차지했다. 거기로부터 다윗의 신실한 후손들은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복들을 다른 나라들로 확장시키는 일에 두었다. 이런 의미에서 지상의 이 지역 위에 다윗 왕조를 수립한 것 또한 어느 날 온 세상에 일어날 일을 예표했다. 시편 72:11, 17 이 어떻게 다윗의 미래의 아들의 통치를 바라보고 있는지 들어 보라. In addition to this, the borders of the Promised Land mentioned in Genesis 15:18 were the boundaries that David's kingdom reached generations later. David reached the full extent of the land promised

to Abraham. From there, David's faithful descendants set their eyes toward spreading the blessings of God to other nations. So in this sense, the establishment of David's throne over this region of the earth also anticipated what would one day happen to the entire world. Listen to the way Psalm 72:11, 17 anticipate the rule of a future son of David:

**(시 72:1, 8, 11, 17) 모든 왕들이 그에게 절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길 것입니다. . .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받기를 바라고, 모든 민족이 그를 복되다고 부르길 바랍니다.**

**All kings will bow down to him and all nations will serve him... All nations will be blessed through him, and they will call him blessed (Psalm 72:11, 17).**

여기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지배를 에덴으로부터 땅 끝까지 확장해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들을 땅 끝까지 확장하기 위해 약속의 땅을 부여받은 것처럼, 다윗 왕조도 하나님의 통치와 복들을 땅 끝까지 확장하기 위해 약속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o, we see then, that as Adam and Eve were to extend their reach from Eden to the ends of the earth, as Abraham was given the Promised Land to extend God's blessings to the ends of the earth, the house of David possessed the Promised Land to extend God's rule and blessings to the ends of the earth.

각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예표하였다. 그분의 백성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들이 그들 시대에 경험하고 있는 것의 모형론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떻게 그것이 미래의 더 큰 대형을 가리키고 있었는지를 예감할 수 있었다. 다른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한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어떤 인물들, 제도들, 사건들이 장차 올 일들을 예표하는 모형들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들의 이해가 제한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은 그들 당시의 모형들이 미래를 예표하는 방식들에 관한 많은 관점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At each stage, what God accomplished anticipated what was going to come about in the future.

His people could anticipate to some extent, the typological significance of what they were experiencing in their day and how it pointed to a greater antitype in the future. In many other cases, people in the Old Testament who understood the purposes of God were able to see how certain persons, institutions, and events were types that foreshadowed things to come. Their understanding was certainly limited, but they could grasp many aspects of the ways types in their days anticipated the future.

이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다른 많은 경우에 모형들과 대형들을 이해하는 것이 예표의 문제가 아니라 반성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어떻게 대부분의 모형들이 그들의 대형들로 발전될 것인지 식별하는 일은 더 늦은 시대의 유리한 관점에서 더 이른 시대의 인물들, 제도들, 사건들을 반성해 보는 것을 포함한다. Now as true as this is, it's also important to realize that in many other cases, understanding types and antitypes is not so much a matter of anticipation, but of reflection. Identifying how most types would develop into their antitypes involves reflecting from the vantage point of later times on earlier persons, institutions and events.

이런 유추를 생각해 보라. 당신의 손에 도토리를 갖고 있고 그것이 성장한 나무로서 무엇처럼 보일 것인지 알려 한다고 가정해 보라. 완전히 성장한 떡갈나무는 도토리과 매우 다르게 보인다.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초자연적 능력이 없는 한, 당신의 손에 있는 도토리가 성장한 나무로서 무엇처럼 보일 것인지에 대하여 많이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Consider this analogy. Suppose you have an acorn in your hand and you want to know what it will look like as a mature tree. A full grown oak tree looks very different from an acorn. So, apart from some supernatural ability to predict the future, it is not easy to know much about what the acorn in your hand will look like as a mature tree.

많은 점에서 있어서, 이것이 사람들이 구약에서 직면하던 상황이었다. 흔히 모형들은 그들의 대형들과 매우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들의 발전을 예감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예를 들어, 베드로가 노아의 홍수를 기독교 세례의 모형으로 인정하였을지라도, 노아 시대에 그 누구도 그 때의

세계적인 홍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개인들의 세례에 대한 예표라고 상상할 수 있었겠는가? 모세 시대에 살던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의 늦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대한 예표로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대형들은 그들의 모형들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초자연적 계시를 떠나서는 예측될 수 없었다. In many respects, this was the situation that human beings faced in the Old Testament. Types often look so different from their antitypes that anticipating their developments would have been nearly impossible. For instance, although Peter identified Noah's flood as a type of Christian baptism, who in Noah's day could have imagined that the worldwide flood of that time anticipated the baptism of individuals in Christ? It would have been nearly impossible for the average Israelite living in Moses' day to know that Moses' bronze serpent foreshadowed Christ's crucifixion. The antitypes simply look too different from their types for them to have been predicted apart from supernatural revelation.

우리의 유추로 돌아와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우리가 우리 손에 있는 도토리를 잘라서 그것의 유전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한다고 가정해 보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도토리의 내재적인 특징들에 관하여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유전자가 도토리가 자라서 될 성장한 나무의 모든 특징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도토리가 성장하여 떡갈나무가 되고 사과 나무나 배 나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떡갈 나무의 높이, 가지들의 수, 뿌리의 크기와 같은 많은 구체적인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기후, 물 공급, 영양분, 빛, 질병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것들이 전적으로 유전 정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So let's return to our analogy and go a step further. Suppose we slice off a bit of the acorn in our hand and perform a thorough analysis of its DNA. By doing so, we learn much more about the underlying characteristics of the acorn. Even so, DNA does not determine every feature of the mature tree into which the acorn will grow. We could be sure that the acorn would grow into an oak tree, and not into an apple or pear tree. But we could not know many

specific things like its height, the number of branches or the size of its root system. These features are influenced by external forces like weather, water supply, nutrition, light, and disease. They are not determined entirely by the genetic code.

이와 매우 비슷하게 우리는 성경 역사에서 모형으로 사용된 중요한 인물들, 제도들, 사건들과 연관된 유전 정보 곧 신학 구조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보는 우리에게 후대의 발전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게 할 수 있지만, 모형과 대형 사이의 발전들은 전적으로 이 수단에 의해서만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들이 빈번하게 역사를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인도한다. 모형의 신학적 의미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그것의 대형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In much the same way, we may be able to understand the genetic code or the theological structures associated with significant persons, institutions and events that serve as types in biblical history. This knowledge may provide us with some expectations for later developments, but the developments between a type and its antitype are not entirely predictable by this means. New revelations from God often take history in unexpected directions. Even with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theological significance of a type, we cannot always predict the details of its antitype.

모형들과 대형들에 대하여 전자로부터 후자를 예측함으로써 이해하려고 하는 대신, 우리는 통상 반성의 과정에 의존해야만 한다. 성경 저자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역사적 상황을 이용하여 어떻게 더 이른 시기의 인물들, 제도들, 사건들이 실제로 더 늦은 시기의 대형으로 발전되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Instead of trying to understand types and antitypes by predicting the latter from the former, we must usually rely on a process of reflection. Like biblical writers, we have to take advantage of our historical situation and reflect on the ways that earlier persons, institutions and events actually developed into later antitypes.

다시 우리의 유추로 돌아와서, 우리가 한 줌의 도토리들을 가지고서 다른 많은 도토리들과 함께 심었다면, 여러 해 후에 우리는 숲에 있는 각



나무의 유전자 분석과 각 도토리에 대한 우리의 원래의 유전자 분석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유리한 관점에서 우리는 어느 나무가 어느 도토리에서 나왔는지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매우 흡사하게, 성경 역사의 후 시대들의 신학 구조들을 알고 있는 유리한 관점에서, 우리는 모형들의 신학적 구조들과 후대의 인물들, 제도들, 사건들과 연관된 신학 구조들을 비교함으로써 모형들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To return to our analogy again, if we have a handful of acorns and plant them along with many other acorns, after a number of years we'll be able to compare a DNA analysis of each tree in the forest with our original DNA analyses of each acorn. From this vantage point, we'll be able to identify which tree came from which acorn. In much the same way, from the vantage point of knowing the theological structures of later periods in biblical history, we are able to identify types by comparing their theological structures with the theological structures associated with later persons, institutions and events.

기독교인으로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연관된 신학 구조들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담의 불순종과 연관된 비슷한 신학 구조들과 비교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근거에서 그는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했다. 베드로는 기독교 세례의 물과 연관된 신학 구조들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이 노아 홍수의 물과 연관된 신학 구조들과 갖는 상관성에 주목했다.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신학적 의미를 파악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모세 시대에 늦밤이 가졌던 비슷한 의미와 나란히 두셨다. 그러므로 모형들이 그들의 대형들을 예표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형들이 예표한 것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은 그 대형들이 역사에 나타난 이후에 (반성을 통해) 가능하다. As a Christian, Paul understood the theological structures associated with Christ's obedience and was able to see the comparison with similar theological structures associated with Adam's disobedience. On this basis, he spoke of Adam as a type of Christ. Peter understood the theological structures associated with the water of Christian baptism and noted the correlations with the theological structures associated with the water of Noah's flood. Jesus grasped the theological significance of

his crucifixion and put that side by side with the similar significance of the bronze serpent in Moses' day. So, while types truly anticipated their antitypes, normally we can only identify these anticipations after their antitypes have appeared in history.

일단 이러한 반성의 과정을 파악하게 되면, 우리는 모형들의 정체를 확인하는 일이 구약의 통시적 발전들에 대한 연구의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성경이 모형들의 정체를 밝힐 때 그것들은 규범적이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성경이 통시적 신학 발전들을 명시적으로 철저하게 추적하고 있지는 않다. 구약의 신학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탐구할 때, 성경신학자들은 더 늦은 시대의 계시에 드러난 인물들, 제도들, 사건들의 신학적 의미를 먼저 배워야만 하고, 그 후에 더 이른 시대의 계시에 주어졌던 그것들의 예표들을 확인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구약의 신학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살필 수 있다. Once we grasp this process of reflection, we can see that identifying typologies is an important part of studying diachronic developments in the Old Testament. To be sure, when the Scriptures identify typologies, they are normative and we must not contradict them. But the Scriptures do not explicitly trace diachronic theological developments exhaustively. As biblical theologians explore the full range of theology in the Old Testament, they must learn the theological significance of persons, institutions and events in later revelation, and then identify their anticipations in earlier periods of revelation. In this way, they can see how the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developed over time.

## **V. 결론(CONCLUSION)**

이 강의에서 우리는 구약의 통시적 발전들을 검토했다. 우리는 구약 신학에 대한 통시적인 곧 발전적인 접근법들에 대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다. 우리는 구약의 신학이 역사적인 시대들 혹은 단계들에서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는 구약의 신학에 드러난 특별한 주제들의 발전들을 탐구했다. In this lesson, we have examined diachronic

developments in the Old Testament. We have gained a basic orientation toward diachronic or developmental approaches to Old Testament theology. We have seen how Old Testament theology progressed in historical epochs or stages. And we have explored the developments of specific themes in Old Testament theology as well.

구약의 통시적 발전들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렇지만 이 강의에서 소개된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은 창세기의 초기 시대부터 구약의 마지막 시대까지 신학이 어떻게 발전했는가에 대한 후속 연구를 위한 견고한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Many more things could be said about diachronic developments in the Old Testament. But grasping what we have presented in this lesson will provide a solid foundation for further investigation into the ways theology developed from the early days of Genesis to the last days of the Old Testament.

## **VI. 연구의 길잡이(Study Guide)**

### **A. 복습을 위한 질문들(Review Questions)**

1. “통시적”이란 용어가 의미하는 것을 설명하라. Explain what is meant by the term “diachronic.”
2. 통시적 변화라고 말하는 대신 “발전”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이러한 발전은 하나님의 목적들과 하나님의 섭리를 포함하는가? Why do we use the term “development” instead of simply speaking of diachronic changes? How does this development involve God’s divine purposes and divine providence?
3. 성경을 통시적으로 다루었던 저자들이나 성경 인물들 중 적어도 한 가지 예를 들어보라. Give at least one biblical example of authors or characters in the Bible treating the Scriptures diachronically.

4. 우주적 언약들, 민족적 언약들, 새 언약을 진술하라. 어떻게 이 다양한 언약들이 구약의 역사를 중요한 신학적 시대들로 나누게 하는지 설명하라. Describe the universal covenants, the national covenants, and the new covenant. Explain how these various covenants divide the history of the Old Testament into major theological periods.
5. 어떻게 구약 역사의 언약 시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경영으로서 통일되는지 설명하라. Explain how the covenant epochs of Old Testament history were unified as administrations of God's kingdom.
6. 더 이른 언약들의 권위가 더 늦은 언약들에 어떻게 확장되는지 서술하고, 더 이른 언약들로부터 배운 교훈을 더 늦은 시대 상황들에 적용할 때 왜 주의를 해야만 하는지 설명하라. Describe how the authority of earlier covenants extended to later covenants, and explain why care must be taken when applying lessons learned from earlier covenants to later situations
7. 다른 언약 시대들의 관계들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을 서술하라. Describe three aspect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different covenant ages.
8. 전통적인 조직신학의 가장 보편적인 주제들은 무엇인가? 성경신학자들은 이 주제들을 어떻게 접근하는가? What are the most common topics of traditional systematic theology and how do biblical theologians approach these topics?
9. 성경의 모형론은 무엇인가? 그것이 성경신학 연구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들을 들라. What is biblical typology and why is it important to the study of biblical theology? Give examples.

10. 성경의 모형론의 다섯 가지 특징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구약의 모형들의 정체를 확인하는가? What are five important features of typologies in Scripture, and how do we identify typologies in the Old Testament?

## **B. 적용을 위한 질문들 (Application Questions)**

1. 우리가 구약을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하거나 구약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할 때, 어떻게 성경의 신학이 세월의 흐름을 따라 발전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What makes understanding how the Bible's theology developed over time so important for us as we seek to apply the Old Testament to our own lives or teach it to others?
2. 우리가 어떻게 성경신학이 세월의 흐름을 따라 발전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할 수 있는 측면들은 무엇인가? What are some ways that we might misinterpret and/or misapply the Bible if we fail to understand how biblical theology developed over time?
3. 우리가 오늘날 성경신학을 연구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결혼의 통시적 발전에 관하여 서술하신 것은 어떻게 우리를 위한 본보기가 될 수 있는가? How can Jesus' description of the diachronic development of marriage be an example for us as we seek to do biblical theology today?
4. 새 언약 아래 있는 오늘의 교회 예배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들로 (제사, 성전, 유월절 식사와 같은) 구약 예배의 관점들에 관하여 성경을 적용해야 하는가? In what ways should we apply the Scriptures

concerning aspects of Old Testament worship (sacrifice, temple, Passover meal) in church services today under the new covenant?

5. 어떤 방식들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곧 구속사의 더 이른 시기에 있는 것처럼 살도록 유혹을 받는가? In what ways might Christians today be tempted to live as if we were in an earlier age of redemptive history, before the coming of Christ?
6. 어떤 방식들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더 이른 시기에 가르치신 지혜를 잊어버리도록 유혹을 받는가? In what ways might Christians today be tempted to forget the wisdom that God had taught in earlier ages?
7. 성경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성경의 모형론 사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What is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the Scriptures' use of typology for the study of the Bible?
8. 어떤 방식들로 모형론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가 경험할 실체들을 우리에게 지적할 수 있는가? In what ways can typology point us forward to the realities that we will experience when Christ returns, and how can this give us hope in the present time?
9. 이 강의를 통하여 당신이 배운 가장 중요한 통찰은 무엇인가? What is the most significant insight you have learned from this study?
10. 이 강의 이후에 후속 연구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연구 분야는 무엇인가? What areas of study do you believe you need to pursue further after this lesson?